

덩치 커진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 14



이진희 자이글 대표 "산소케어로 제2도약" 16

코스피(8일 전주 대비)	코스닥
2137.44 (-58.00P)	735.97 (-4.72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36.20 (+11.5원)	1.802% (-0.011%p)

아파트 '보유세 폭탄' 터진다... 1주택자도 '초비상'

스페셜 리포트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15일부터 열람 작년 서울 아파트값 8.2% ↑ '12년새 최고' 보유세 수백만원 늘어 은퇴자 등 부담 가증

부동산 시장 변동성의 분수령이 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고, 금융 부담 등으로 급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파트 공시가격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3면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예정공시가격' 열람이 이달 15일부터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에 나온다.

이보다 앞선 다음 달 19일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열람 뒤 관보에 공시한다. 이후에 한 번 더의 신청을 거쳐 공시 조정도 진행한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기록을 경신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시장의 중심축인 만큼 인상률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은 2007년 전국 22.8%, 서울 28.5%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2%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상승률(4.7%)보다 3.5%포인트 큰 폭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지난해 수준만큼

만 오른다고 봤을 때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라도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난해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압구정현대 전용 196.21㎡만 하더라도 2018년 공시가 2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27억559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에 따라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자(만 59세 미만)가 내야 할 보유세는 2018년 1380만4128원에서 2019년 1998만7088원으로 약 618만 원 늘어난다. 소득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득이 없

는 은퇴자 등은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이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이미 높은 만큼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주요 기준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지만 상승폭은 당시 2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을 것이라 관측과 함께 지난해 말 가격 하락세가 얼마만큼 반영될지를 주된 변수로 꼽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주총시즌 개막

LG전자·포스코·효성·기아차 상장사 119곳 이번주 표대결 '행동주의 펀드' 주주운동 주목

올해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LG전자, 포스코, 효성, 기아차 등 주요 상장사 119개 업체가 이번 주(11~15일) 주총을 연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20일), 현대차·삼성바이오로직스(22일), LG·SK텔레콤·셀트리온(26일), SK·한화·한진·대한항공(27일) 등도 잇따라 주총을 열 계획이다.

올해 주총 최대 이슈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와 대기업 오너·경영진 간의 대결이다. 또 양측의 대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행보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최대 관심 기업은 한진칼·한진·대한항공이다.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속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 운동 도전을 받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 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했으며, 한진그룹 회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연임도 반대하고 있다. KCGI 측은 한진칼 지분을 12.01%, 한진 지분을 10.17%까지 늘린 데 이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차명 소유(3.8%)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양사 대결의 열쇠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율 11.56%)이자 한진칼의 3대 주주(지분율 7.34%)로,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안을 제시, 한진 일가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주권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주요 관심 기업이다. 엘리엇은 현대차(지분 3% 보유)와 현대모비스(2.6%)에 총 8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각 3명과 2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엘리엇의 배당 요구 및 사외이사 선임 주주 제안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표대결이 예상된다. 고종민 기자 kjm@



어느새 꽃피는 봄

국성을 부르던 미세먼지가 주춤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맞이에 나선 상춘객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졌다. 10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은 시민이 분홍빛 홍매화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현대차, 'GBC' 공동개발 선회

해외 연기금·국부펀드 등과 타진 '뉴욕 허드슨 야드 개발' 벤치마킹 미래 투자재원 확보 위한 전략인 듯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추진 중인 초고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전략을 전격 수정했다. 자체 개발이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와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관련기사 12면

10일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투자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GBC 건립 공동 개발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외 연기금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우수 기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GBC 건립과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해 이를 바탕으로 GBC를 완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투자 효율성 측면과 GBC의 뛰어난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미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뉴

욕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허드슨 야드 사업은 뉴욕 허드슨강 유역을 따라 개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토지 매매계약 당시 10조5500억 원의 대금을 지불했다. 현대차가 55%를 부담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25%와 20% 비율로 참여했다. 이후 건축비 역시 현대차와 이들 계열사가 같은 비율로 분담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차그룹이 'GBC 공동개발' 카드를 택한 것은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해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주주와 시장 관계자들을 초청해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 2023년까지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등에 45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최종 심의를 통과한 GBC 사업은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英 '브렉시트' 운명의 한 주

수정안·노딜 등 최대 3차례 투표 EU 27개 회원국 찬성해야 연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긴 드라마의 끝을 짚게 될 전망이다.

영국 하원은 이번 주 최대 세 차례의 투표를 한다. 첫 투표는 이달 1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다. 영국 하원이 1월 15일 메이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과 '미래 관계 정치선언'을 230표 차로 부결시킨 데 따른 두 번째 브렉시트 수정안 투표다. 다만 EU와 영국은 아직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 국경 문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미국 CNBC방송은 전했다.

브렉시트 수정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 바로 그다음 날인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탈(脫)런던 선언'도 노 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CNBC는 영국 의원 대부분이 노 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으나 투표에서 이번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투표가 모두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를 15일 앞둔 오는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표결하게 된다. 다만 브렉시트 연기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9일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직장인들 칼퇴근... 자기계발·여가활동에 지갑 열었다

주52시간 근무제 효과

외국어 학원·문화센터 등록 증가
작년 교육비 3% 늘어난 42兆
취미용품 판매량 8년새 최대폭
와인 12%·맥주 17% 수입 급증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일까. 지난해 직장인들의 교육비와 오락문화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교육비 지출(명목)은 42조2479억 원으로 전년보다 3.2%(1조3107억 원) 증가했다. 지출 총액은 사상 최대였던 2011년(42조812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증가율은 2009년(3.2%) 이후 가장 높았다.

교육비 지출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감

근로시간 단축 효과(전년 대비)



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그러다가 2016년(0.5%)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후 매년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이 꼽힌다.

특히 근로시간은 지난해 7월 법정 근로 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는데, 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외국어 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한 직장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들을 겨냥해 평일 저녁 강좌를 늘리거나 시

간대를 조정하는 문화센터 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오락문화 지출도 67조23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2011년(5.8%)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 지수도 오락, 취미, 경기용품이 전년보다 12.3% 늘며 2010년

(13.0%)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국제통계에서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스포츠시설은 영업 사업자는 27.9% 늘었으며, 실내스크린골프와 헬스장도 각각 9.1%, 6.9%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 직장인들의 오락문화 지출을 늘리는 데 인했을 거라는 게 한은 등의 분석이다.

회식 문화도 바뀌고 있다. 주된 회식 장소인 술집 경기는 불황인 데 반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맥주와 와인 수입량은 크게 늘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와인 수입 증량은 4만291톤으로 전년 대비 11.5% 늘었다. 맥주 수입 증량도 17.1% 급증했다. 수입 맥주는 '4캔에 1만 원' 등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마케팅에 힘입어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드라마 줄줄이 꺾고 있는 '솔로' 김 대리

1인 가구의 하루평균 TV 시청시간이 3시간 10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용찬 연구위원이 발표한 '1인 가구, 능동적 미디어 활용자'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TV 이용시간은 3시간 10분으로 1세대 가구(부부+3시간 24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나홀로 1인 가구 가운데 20대 연령층이 21.7%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9.1%로 뒤를 이었다.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의 평일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2시간 53분, 2세대 가구(부부+자녀)는 2시간 22분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일반 TV 보유율은 91.6%로,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최저였다.

1인 가구 TV 이용시간 하루 평균 '3시간 10분'

1세대 가구 다음으로 많아

TV 보유·유료방송 가입 최저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활용 프로그램 몰아보기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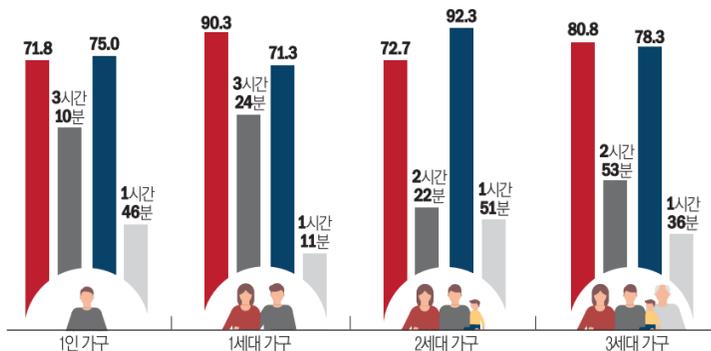
TV 보유율은 3세대 가구가 100%로 가장 높았고, 1세대 가구 98.7%, 2세대 가구 98.2%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의 디지털 TV 보유율도 78.8%에 머무르면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낮았다. 3세대

가구가 97.7%였고, 2세대 가구 95.5%, 1세대 가구 92.4% 등이었다.

1인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도 85.9%로 3세대 가구(97.7%)와 1세대 가구(95.0%), 2세대 가구(94.5%)에 못 미쳤다. 반면 1인 가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7.7%로, 2세대 가구(9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3세대 가구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5.5%로 가장 낮았고, 1세대 가구는 97.0%였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2세대 가구가 95.6%로 가장 높았고, 3세대 가구 85.1%, 1인 가구 81.5%, 1세대 가구 78.8% 등 순이다. 1인 가구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46분으로, 2세대 가구(1시간 51분) 다음으로 많았다.

가구별 TV·스마트폰 이용빈도 및 시간

■ TV 이용 빈도(주 5일 이상) ■ TV 이용 시간(이용 시간은 평일 이용자 평균)
■ 스마트폰 이용 빈도(주 5일 이상) ■ 스마트폰 이용 시간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시청의 경우 1인 가구의 10대와 20대 이용률이 각각 39.6%, 40.3%로 다른 가구 유형의 같은 연령대 구성원에 비해 2배 내외의 차이를 보였으며 30대 이용률도 29.6%로 3세대 가구의 30대 이용률(32.9%)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방송시간에 맞춰서 시청하는 것보다 몰아보기를 선호하는 특성이 나타나, 향후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미디어 이용 트렌드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한남더힐’ 추가 세금 부담액, 9만원 → 최소 725만원

(235.31㎡)

<지난해 공시가 인상을 적용>

<올해 중부세 개편으로>

고가 아파트 ‘보유세 폭탄’

공시가 상승에 1주택자도 사정권 보유 기간 5년 이상엔 부담 경감 “세금 낼 바엔”... 증여건수 3배 ↑

올해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만큼 오른다는 보수적인 가정에도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1주택자는 수백만 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투데이는 10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인상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뒤 서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인상 수준을 시뮬레이션했다.

먼저 지난해 인상률을 적용하면 압구정 현대 전용 196.21㎡는 2018년 공시가 24

서울 주요 고가아파트 보유세 인상 현황 (단위: 만 원)



※ 2019년은 예상치
 ※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8년 공시가격 인상 적용 후 보유세 추정
 ※ 5년 미만 보유 1주택자(59세 미만) 기준, 보유세는 중부세·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 제공: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억800만 원에서 2019년 27억559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2015년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면 2016년 190만 원 증가한 보유세가 2017년 207만 원, 2018년 264만 원 늘더니 올해는 618만 원(보유 기간이 5년·만 59세 미만 1주택자 기준)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전 기준을 적용하면 383만 원을 내면 됐다. 이렇게 부담해야 할 보유세액은 2018년 1380만 원에서 2019년 1998만 원이다.

최고가 주택의 상징인 서울 용산 한남더힐 235.31㎡는 지난해 내야 할 보유세가 2235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2960만 원으로 725만 원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공시가 인상이 0.25%에 불과했기 때문에 중부세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인상액은 9만 원 정도였다.

다만 아파트 보유 기간이 5년이 넘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앞서 예로 든 압구정현대와 한남더힐에 적용할 경우 각각 170만 원, 370만 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단지들은 1주택자도 80만 원가량 보유세를 더 내

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6300만 원이었던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튼 84.81㎡는 올해 9억3446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된다.

이 경우 새로 중부세 대상이 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199만 원에서 올해 281만 원으로 증가한다. 중부세는 누진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보다 비교적 세금 부담이 덜 한 편이다.

한편 고가 주택 소유자들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명의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부부 간 비교세 한도인 6억 원에 맞춰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

동명의로 바꾸는 식이다. 이 경우 양쪽 모두 본인 지분이 9억 원 아래로 줄어 중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국감정원에 따르면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의 증여 거래 건수는 2017년 2175건에서 지난해 695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구별로는 강남구 증여 건수가 2017년 1077건에 불과해 2016년 1164건보다 오히려 줄었으나, 2018년에는 2782건으로 158.3% 증가했다. 서초구(2212건)와 송파구(961건)도 2018년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99.8%, 104.2%로 2배 늘어났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가상으로 본 아파트 2채 자산가 세테크



증여 대상 아파트 (단위: 원)

※ 제공: 김종필 세무사

소재	광진구 자양동 자양 7차 우성아파트	2018년 공시가격	514,000,000
전용면적	84.93㎡	2018년 12월 실거래가	830,000,000

아파트 증여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녀가 납부할 경우) (단위: 원)

수증자	배우자	자녀 1명	자녀 2명
증여가액	830,000,000	830,000,000	830,000,000
증여세	34,920,000	168,780,000	122,220,000
취득세	19,532,000	19,532,000	19,532,000
소계	54,452,000	188,312,000	141,752,000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사실 없으며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하는 경우

현금 증여 (현금증여시 증여받은 금액으로 세금납부 가정) (단위: 원)

수증자	배우자	자녀 1명	자녀 2명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600,000,000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	50,000,000	50,000,000
세율	-	10%	10%
산출세액	-	5,000,000	5,000,000
세액공제	-	150,000	150,000
자진납부할 세액	-	4,850,000	4,850,000

“2채 중 1채 팔아 현금증여 유리 월지급식 ELS로 생활비 활용을”

다음 달 말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추구하는 만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자산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1964년생 박정우(56·가명) 씨, 최근 대기업 A계열사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연봉은 2억 원에 체결. 새 출발에 대한 설렘도 잠시,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남편으로서, 대학생 남매의 아빠로서 고민만 부쩍 늘었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은 더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은행PB와 연락하는 일도 예전보다 늘었다.

박 상무는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2018년 공시지가 6억8800만 원)와 자양우성7차 아파트(84.93㎡·2018년 공시지가 5억1400만 원)를 소유한 2주택자다.

막연하게 언젠가 아파트를 물려줄(증여) 생각을 하고 있던 박 상무. 정부의 보유세 개편,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갈수록 불어날 세금이 부담스럽다. 사업가가 아닌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작년 재산세는 180만3360원 정도 나왔다. 작년 공시가격 인상률(10.26%)을 가정해 올해 공시가격을 추정하면 7억5856만4000원으로 나온다. 재산세는 200만 원을 넘겨 206만5856원이 된다. 작년보다 25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자양우성7 재산세도 이대로라면 11만 원 더 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세금만 40만 원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한다. 마포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만큼 늘어나

는 세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민 끝에 박 상무는 자양우성7차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대학생 남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보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생긴 자금을 주는 게(현금 증여) 더 이롭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파트를 8억3000만 원에 팔았다.

박 상무는 현금 증여를 택했다. 대학생 남매에게 각각 1억 원을, 아내에게는 3억 원을 줬다.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건 처음이다. 아내에게 준 돈은 증여재산공제(6억 원)이 내어서 별도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러나 남매에게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이 붙었다. 500만 원에서 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아 한 명당 48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박 상무는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웠다. 우선 아내의 3억 원은 상의 끝에 월지급식 ELS에 넣기로 했다. 금리가 연 5%대인 만큼 한달에 12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상무 본인이 가진 3억3000만 원 중 2억 원은 5~6%대 수익을 기대하며 해외부동산펀드(3개월 이자 지급식)에 투자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약 250만 원 정도를 받아 생활자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고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크다”며 “2~3년 후에 은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속해서 자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한 채를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짜는 것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쌍용자동차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뷰:티풀 코란도 탄생

VIEWtiful
KORANDO

BLAZE COCKPIT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 9인치 AVN | 인피니티 무드램프

LED 리어콤비 램프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080-500-5582 www.smotor.com 코란도 ● 2WD 수동 6단: 복합 14.5km/ℓ [도심주행 13.6km/ℓ, 고속도로 15.8km/ℓ] | 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525kg | CO2배출량: 130g/km | 2등급 ● 2WD 자동 6단: 복합 14.1km/ℓ [도심주행 13.2km/ℓ, 고속도로 15.5km/ℓ] | 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535kg | CO2배출량: 134g/km | 2등급 ● AWD 자동 6단: 복합 13.3km/ℓ [도심주행 12.3km/ℓ, 고속도로 14.9km/ℓ] | 배기량: 1.597cc | 공차중량: 1.640kg | CO2배출량: 143g/km | 3등급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2조5000억 배당 보따리 풀었다

지난해 배당금 총액 8.8% 늘어...KB금융, 7597억 최대치
배당성향 24% 2배로...M&A 실탄 확보 우리금융 5.2%P↓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이 지난해 2조5000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난 가운데, 각사 경영 전략에 따라 주가 부양과 인수·합병(M&A) 중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달리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2조5208억 원으로 전년(2조3171억 원)보다 8.8%(2037억 원) 늘었다.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배당성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풀이된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0조4990억 원으로 2011년(8조8322억 원)보다 18.9%(1조6668억 원) 늘어

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은 같은 기간 11.1%에서 24.0%로 가파르게 올랐다.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이 7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7530억 원), 하나금융(5705억 원), 우리금융(437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당성향은 하나금융(25.5%), KB금융(24.8%), 신한금융(23.9%), 우리금융(21.5%) 등 순이다.

금융지주 배당 증가 배경에는 펀더멘털과 비교해 낮은 주가 수준이 꼽힌다. KB금융 PBR(주가순자산비율)은 8일 기준 0.53배, 하나금융은 0.47배, 신한금융지주는 0.62배 등으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주

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KB·신한·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이 상승한 것과 달리 우리금융은 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4대 지주의 배당성향을 보면 앞으로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전년 대비 배당성향을 3% 포인트로 크게 높이면서 본격적인 주가 부양에 나섰다. 이승열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18년도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고(高)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KB와 신한은 경우 배당성향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이 각각 1.6% 포인트, 0.3%포인트로 크진 않다. 주주가치 제고와 M&A 실탄 마련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KB금융은 생명보험 인수에 관심이 있고 최근 증권·카드사 인수 의향도 피력했다. 김기환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그룹 내 포트폴리오상 취약한 생명보험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자산관리에 우위가 있는 증권사, 고객 세그먼트에 강점이 있는 카드사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지난해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에 이어 올해 롯데캐피탈 인수를 검토하는 등 M&A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에는 이사회에서 7500억 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유는 "신성장 기회 확보를 위한 자본 여력 유지"로 M&A 여지를 열어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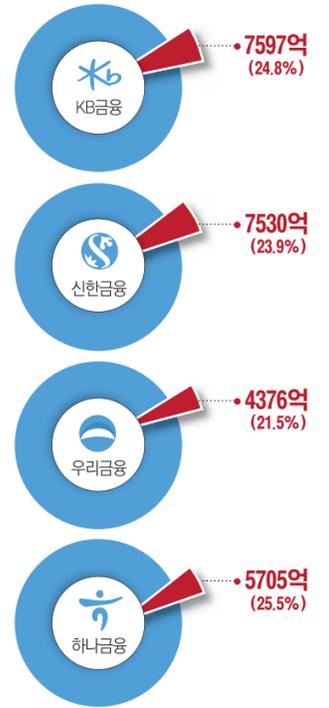
우리금융은 전년(26.7%)보다 배당성향이 5.2%포인트 낮아졌다. 지주사 전환 이후 적극적인 M&A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 중앙기적으로는 보험사와 증권사를 사들일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2018년 4대 금융지주 배당액

(단위: 원, 괄호는 배당성향)

● 당기순이익 ● 배당액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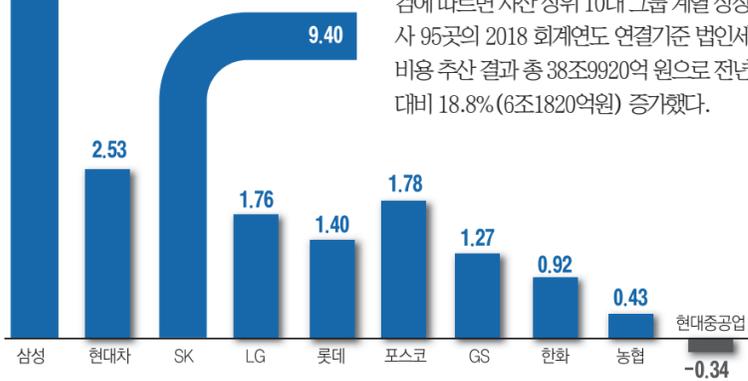
10대 그룹 법인세 합계

38.99

10대 그룹 상장사, 법인세 39兆 '사상 최대'

삼성전자 17兆 최대...7개 그룹 상승세
유효세율 28.5% 전년보다 3.7%P 올라

10대 그룹 상장사 법인세 비용 현황
(단위: 조 원)
*출처: 재벌닷컴



지난해 10대 그룹 상장사의 법인세 비용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의 2018 회계연도 연결기준 법인세 비용 추산 결과 총 38조9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6조1820억원) 증가했다.

집계 대상 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 세전이익은 2017년도 132조5030억 원에서 작년도 136조7740억 원으로 3.2% 늘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세전이익이 62조6300억 원에서 71조7660억 원으로 14.6%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15조840억 원에서 19조8490억 원으로 25.6%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 세전이익이 61조1600억 원으로 8.8%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 비용은 16조8150억 원으로 20.0%나 늘었다.

SK그룹은 작년도 세전 이익이 35조933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늘었고 법인세 비용은 9조3980억 원으로 44.7%

증가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5조8010억 원으로 전년도(2조797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전이익은 21조3410억 원으로 58.8% 증가했다.

GS그룹은 세전이익이 3조197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2.2% 늘었으며 법인세 비용도 1조2670억 원으로 39.7%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세전이익이 8조39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2.9% 감소했지만 법인세 비용은 2조5290억 원으로 26.2% 늘었다.

10대 그룹 중 이들을 비롯해 롯데·포스코·농협 등 모두 7개 그룹은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보다 늘었다.

그러나 LG그룹은 세전이익이 7조8030억 원으로 2017년도보다 36.7% 줄면서 법인세 비용도 1조7570억 원으로 29.1% 감소했다. 한화그룹도 세전이익이 41.7% 줄면서 법인세 비용이 전년도보다 52.2% 줄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전순이익이 3450억 원에 달해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유효세율'은 10대 그룹 상장사 평균 28.5%로 2017년도(24.8%)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유효세율은 세법상 세액에서 초과세 비용 공제 등 세부조정을 거쳐 산출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고종민 기자 kim@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책 바뀐 것 모르고 태양광 설치했다간 '낭패'

산림훼손 지적... 산지 파손 비용 부담·보조금 50%→30% '전용허가'서 '일시 사용허가'로 변경... 향후 원상복구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라 태양광(중·소형 기준) 설비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태양광 정책 변화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작년 12월 산림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산지의 태양광 설비가 까다로워

졌고,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원 보조금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지를 '전용 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해 최대 20년간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운영하면 그 뒤에는 설비를 철거하고 나무

를 심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감면 대상이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부과된다. 태양광발전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진입로, 배수로, 경사로, 용도지역지구 등에 문제가 없으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통해 태양광 설비 시공이 수월했다. 더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또 다른 형태의 개발이 가능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산지에 태양광 설비

구축 광풍이 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산림 훼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 설비 지원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만약 올해 3kW(1kW당 설치비 185만원) 규모의 일반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560만원) 중 168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112만 원 줄어든 것이다. 현재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

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부 보조금 감소분만큼 투자비(자부담 비용)를 회수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며 "또 태양광을 장기간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태양광 설비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해 태양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文 대통령, 올 첫 순방지 아세안 3국 '신남방 정책' 토대 구축 사실상 완성

브루나이와 에너지 협력 확대 말레이와 동반자 관계 발전 모색 韓-캄보디아 비즈 포럼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6박 7일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3개국 순방에서 신남방 정책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북미 중재자 역할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 11일 불카아 국왕 주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

다. 한국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6년 만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 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주최하는 한류·할랄 전시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13일에는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을 갖는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4~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 훈센 총리와 회담하고 1만5000여 명의 현지 우리 동포를 격려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한다. 조현정 기자 jhj@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경호 "근로소득자 증세 안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대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인 2조4000억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고객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장적으로는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됐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직 수락... 5월 당 복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사진)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청와대와 거리를 두겠다고 2017년 외국으로 나갔던 그가 2년 만에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그는 1월 이해찬 대표로부터 원장직을 제안받았으나 고사



를 거듭하다 지난주 이를 수락했다. 연구원은 당의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다.

양 전 비서관이 원장을 맡을 경우 전략 기획, 인재 영입 등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광복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장의 새 임기는 5월 중순 시작된다. 조현정 기자 jhj@

가볍고 강력한 3D CAD!
ZW3D 만의 강점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 기관의 검증 완료

CAD와 CAM이 결합된 All-in-one 솔루션

강력한 '어셈블리 디자인'

카티아, UG-NX, 솔리드웍스 등
3D 데이터 포맷 완벽 호환

QuickMill 기술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가공 톨패스 형성

ZWCAD KOREA
TEL | 02.515.5043
www.zwsoft.co.kr

그들은 왜
ZW3D를
선택했을까?

ZW3D All-in-one, Affordable CAD/CAM

국민소득 3만 달러, 中企·女·일용직엔 ‘남 얘기’

성장 과실 대기업·정규직에 집중... 소득 하위 40% 되레 줄어 상용-일용직 임금차 1.6배... ‘취약한 산업 기반, 양극화 불러’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에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로 대표되는 양극화는 어느덧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됐다. 지표상 대한민국은 일곱 번째 3050 클럽 가입국이자 세계 12위(2017년 GDP 기준)의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절반은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지 못한 채 ‘무늬만 선진국’에 사는 실정이다.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

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 만이다.

하지만 가구 단위로 보면,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상위 60%까지다. 가구 소득은 1분위(20%)에서 17.7%, 2분위(하위 40%)에선 4.8% 줄었다. 1-5분위 간 소득 격차인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역대 최대치인 5.47배로 확대됐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위가 0.81명에서 0.64명으로, 2분위는 1.31명에서 1.21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양극화는 임금에서 더 두드러진

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제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약 3만9000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약 2만1000원)의 1.9배에 달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시간당 임금총액 차이는 1.6배였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2017년 기준 성별 시간당 임금도 남성이 약 2만 원, 여성은 약 1만3000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경제가 성장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는 ‘남 얘기’다.

양극화의 핵심은 일자리 양극화이고, 그 뿌리는 취약한 산업 기반이다. 최배근 건

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 위기는 일자리 위기고, 이는 곧 제조업의 위기”라며 “탈공업화가 진행되면 제조업의 일자리 줄고 서비스업에서 그 일자리를 흡수해야 하는데, 우리 압축성장 과정에서 공업화를 선택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나마 남아 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한 숙련기술을 요하는 일자리라 자동화로 쉽게 대체될 수 있고, 이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중간임금 이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사청문회 준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박영선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왼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리行 항공권 구하기 쉬워진다

韓·프랑스 항공회담... 내년 겨울 운항 주 2회 확대

5년 만에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 표 구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2020년 동계시즌(10월 말)부터 양국 간 운항 횟수를 최대 주 2회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천-파리 간 운항 횟수는 대한항공의 경우 주 7-8회, 2008년 취항한 아시아나항공은 주 5회(9.75단위) 운항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가 주 7-10회 운항 중이다. 그간 인천-파리 노선은 탑승률이 연평균 85%를 웃도는 등 이코노미석 기준으로는 1년 내내 거의 만석이고 특히 여름 등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를 넘나들어 항공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2014년 열린 항공회담에서 운항 횟수 추가 확대를 논의해 왔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 프랑스 측은 운항 불균형과 우리 항공사의 한-프랑스 항공시장 잠식을 우려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천-파리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이를 지난해 10월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상정하고 프랑스 측에 항공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 합의를 통해 향후 프랑스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고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q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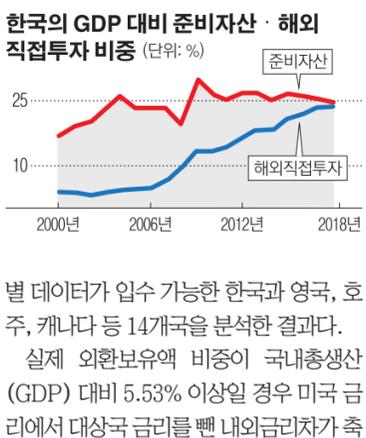
“외환보유액·해외투자 늘면 환율·주가 변동성 줄어”

한은, 국제투자대조표 등 분석... 外人 포트폴리오투자 확대는 변동성 키워

외환보유액과 해외직접투자를 일정 규모 이상 늘리면 대외충격으로 인한 환율과 주가 변동성 확대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율 변동성 축소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주효하며 주가 변동성 축소엔 외환보유액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확대는 국내 환율과 주가 변동성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 국제국 소인환 과장 등이 10일 2004년 1분기(1-3월)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 등 분기



소되거나 환율 절하 시 외환변동성 확대 충격을 거의 100% 낮췄다. 또 33.81% 이상일 때에는 대표적 변동성지수인 빅스(VIX)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를 의미 있게 낮췄다.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자산이 GDP 대비 85.33% 이상일 경우엔 내외금리차 축소에 대한 외환변동성 확대 충격을 4배 이상 줄였다.

반면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비중이 GDP 대비 175.68% 이상일 경우 외환 변동성을, 251.95% 이상일 때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고용보험 가입자 1년새 49만명 증가

서비스업에서 47만명 늘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49만여 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에서 47만 명 늘어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만3000명(3.8%) 늘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3만7000명), 도소매(6만8000명), 숙박음식(6만2000명) 등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사업서비스 피보험자는 제조업 업황 악화 여파로 1만37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영향 등으로 사

업서비스 피보험자들이 타 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늘었다. 1인 가구 확대로 간편식 소비가 늘면서 식료품은 1만3000명 증가했다. 화장품은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화학제품(4000명)과 고령화에 따른 보건, 의료복지 확대로 의약품(4700명)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2000명), 섬유제품(-3600명), 전자통신(-3600명) 등에서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46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 명(9.6%)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000명(0.7%) 늘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월세 13억 나가는데... 별관건축 감사원 결과 애타게 기다리는 한은

‘불법 낙찰 의혹’에 감사 돌입 발표 지연에 공사 1년 반 늦어져 당초 2월 말로 기대했던 한국은행 통합 별관건축과 관련한 조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한은은 목이 빠지는 분위기다. 9일 한은에 따르면 감사원 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와 한은이 바로 첫 삽을 뜨더라도 한은 별관 완공 시점은 일러야 2021년 말이다. 한은 창립 70주년 이전인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계획보다 1년 반 지연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30개월로 예정한 공사기간도 지켜

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사. 한은은 별관건축을 위해 셋방살이를 시작한 지 2년이 돼 간다. 서울 중구 태평로 구 삼성본관 건물의 절반가량인 18개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만 13억 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는 규정상 6개월 내로 끝나야 한다. 작년 10월 말 시작했다는 점에서 4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늦어지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통합별관건축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입찰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달

청은 2017년 7월 예정가격 2829억 원으로 입찰자가 기술제안서와 입찰서를 함께 제출하는 실시체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발주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계룡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조달청은 2017년 말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었다. 이후 낙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3억 원 초과하는 등 선정 과정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삼성물산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달청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신청했고, 그해 6월 시민단체 경실련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작년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시작됐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보호자 없이 시험 가능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이달부터 15세 이하 토플(TOEFL) 응시자는 보호자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TEPS), 지텔프(G-TELP) 등 4개 영어 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이달 중 시정 내용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토플이 정한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조항’이 문제가 있

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화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 책임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시정하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상 모든 새로움의 시작



국내 최다 실외 미세먼지 측정기로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개선하고
5G 스카이스hip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스마트 시티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기술, KT 5G가 시작합니다



5G로 연결된 360 카메라를 통한 도시 안전 모니터링 5G 스카이스hip

미세먼지 농도
98 $\mu\text{g}/\text{m}^3$

5G 에어맵 정보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5G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미세먼지 농도
85 $\mu\text{g}/\text{m}^3$

5G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5G 에어맵 코리아

미세먼지 농도
76 $\mu\text{g}/\text{m}^3$



CONNECTED



CONNECTED



PEOPLE. TECHNOLOGY. **kt**

앱스토어에서 '에어맵코리아(AirMapKorea)'를 다운로드 하세요.

관세 놓고 ‘베격’... 미·중 정상회담 4월로 미뤄지나

中 “합의때 관세 즉시 철폐” vs 美 “점진적 철폐”
2차 북미회담 결렬도 영향... 연기 가능성 부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최종 타결이 4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양측이 지난해 단계적으로 서로에게 부과했던 추가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좁혀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측 무역협상 실무진 대표인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과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양측이 즉시 추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측은 합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3월 하순을 목표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뜻을 밝히며 사실상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9월에 걸쳐 상대방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규모의 70%가 관세 대상이 됐다.

미·중 무역협상 상황

테마	상황	주요 내용
무역적자	대폭 진전	중국, 향후 6년간 1조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수입
환율	대폭 진전	위안화 가치 유도하지 않기로
지식재산권	진전	중국 보호 노력 강화
기술이전	진전	법률 통해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추가 관세	담보	중국, 즉시 철폐 요구. 미국은 단계적 철폐 입장
보조금	담보	미국,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요구. 중국은 신중한 입장 유지
이행검증	이견 여전	미국, 합의 이행 안 했을 시 일방적 처벌 주장. 중국은 반대

중국 측은 지난해 12월 무역협상이 시작된 직후부터 관세 즉시 철폐를 주장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대중국 강경파는 여전히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집착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측은 중국이 무역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틀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양측은 이미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정거적으로 합의 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협의

를 계속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미국은 더 나아가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추가 관세를 다시 발동하는 것은 물론 중국 측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약속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측에는 일방적으로 비친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모든 이행 검증 방식은 양방향으로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이견이 남아 있다. 미국은 거액의 보조금이 중국 기업들의 덤핑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보조금 폐지에 신중하다.

왕서우원 부부장은 “15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외국인 투자법에서 중국 기업이 받는(보조금 등) 모든 우대 정책을 외국 기업들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미·중 무역회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일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인민은행 총재 “G2, 통화 합의 도달”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1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총재는 “미·중 양국은 통화 관련 주요 이슈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며 “중국은 앞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과 통화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2일 중국 대표단으로 미·중 무역협상에 참여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파월 “금리정책, 인내와 관망”

3월 美 FOMC ‘동결’ 유력... “올 4분기, 자산 축소 중단 시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결정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경제정책연구소(SIEPR) 강연에서 자신과 연준 동료들 모두 금리 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전망에서 즉각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연준은 정책 변화에 대해 인내하고 관망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6개월간 글로벌 경제는 둔화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노동부가 8일 발표한 2월 비농업 고용은 2만 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인 18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2017년 9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실업률은 전월의 4.0%에서 3.8%로 하락했으며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4% 올라 거의 10년 만에 최대폭 인상을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강연에서 2월 고용통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좋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2.25~2.50%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비둘기파’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론 성명에서 기존의 ‘점진적 추가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해 올해 금리 인상 주기가 중단됐음을 시사했다.

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된 가운데 연준은 최근 수개월간 자산 보유 축소 중단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최근 평가는 연준의 자산이 올해 4분기 특정 시점에 ‘뉴 노멀’ 규모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연준이 자산 축소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자산 축소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준이 이달 19~20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반도체 매출, 30개월 만에 감소

美·中 IT 기업, 투자·수요 줄며 전년비 5.7% ↓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1월 세계 반도체 매출이 30개월 만에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 미국 IT 대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와 중국의 자동차 투자 러시 등 최근 수요 확대를 지지해온 큰손들의 움직임이 정체된 영향이다. 기술혁신과 경제 파급 요소를 담당해온 반도체 매출 감소는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이신문은 세계반도체시장통계(WSTS)를 인용, 1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한 355억 달러(약 40조 원)였다고 보도했다. 한때 20%를 웃도는 고성장이 계속돼오다가 작년 후반부터 둔화하던이 결국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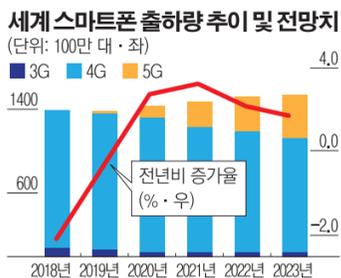
그동안반도체 시장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로 불리는 미국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견인했다. 클라우드의 보급으로 유통되

는 데이터 양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강화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해 양성된 식욕을 과사했다.

그러나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신문에 “2017년만 해도 미국 IT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는 엄청났으나 2018년 초부터 기류가 바뀌었고, 하반기에는 아예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감세 효과로 투자가 과잉된 면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반동 효과와 선진국에서 거세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풍조가 투자 억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WSTS가 2018년 8~10월과 11월~2019년 1월을 비교한 결과, 중국의 반도체 매출은 약 20% 감소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있어서 중국 수요 급감은 큰 타격이다.

일본 반도체 대기업 르네사스테크놀로지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를 이유로 14개 공장 중 13개 공장의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6일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의 가상화폐 버블 붕괴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마이닝(채굴)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는 거의 사라졌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술 혁신의 속도 둔화도 반도체 수요 감소에 일조했다고 본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6일 세계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2019년에 전년 대비 0.8% 감소한 13억9490만 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계 스마트폰 판매는 3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았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뉴욕 랜드마크 ‘크라이슬러빌딩’ 주인 바뀐다

美 부동산 재벌 애비 로젠이 인수

뉴욕을 상징하는 마천루 중 하나인 77층 크라이슬러 빌딩의 주인이 바뀐다.

크라이슬러 빌딩 지분 90%를 보유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나머지 지분 10%를 가진 부동산 업체 티시먼스피어가 빌딩을 RFR홀딩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RFR홀딩은 뉴욕 부동산 재벌 애비 로젠이 거느린 부동산 투자회사다.

소식통에 따르면 RFR홀딩은 크라이슬러 빌딩을 약 1억5000만 달러(약 1706억 원)에 인수한다. 무바달라는 앞서 2008년 크라이슬러 빌딩 지분을 8억 달러에 사들였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매각하게 된 것이다.

CNN은 무바달라 측이 토지임대료 폭등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빌딩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다르다. 이 지역 토지는 뉴욕 사립대인 쿠퍼유니언스쿨이 보유하고 있다. 빌딩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는 기존의 연간 775만 달러에서 지난해 3250만 달러로 폭등했으며 오는 2028년에는 4100만 달러로 될 전망이다.

아울러 크라이슬러 빌딩은 현재 약 40만 평방피트(약 3만7161㎡)의 공간이 임대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새 세입자 유치를 위해 약 2억 달러의 시설 보수비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크라이슬러 빌딩은 뉴욕의 명소 중 하나여서 RFR홀딩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크라이슬러 빌딩은 크라이슬러를 설립한 월터 P. 크라이슬러가 해당 프로젝트를 인수해 1930년 완공한 건물로, 이듬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장 전까지 약 1년간 세계 최고층 빌딩 지위에 있었다. 크라이슬러 본사도 1953년까지 이 빌딩에 있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 “믿을 건 ‘폴더블폰’ 뿐”



지난해 첫 마이너스 성장
출하량 삼성 8%·애플 3.2% 떨어져
혁신적 기능 5G·폴더블폰서 돌파구 찾아
5년 내 전체 판매 25% 차지할 듯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2월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 우울하다. 지난해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NN은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예비 전망 결과를 인용해 작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매출이 1%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작년 스마트폰 출하량 규모는 5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두톱이자 라이벌인 삼성과 애플 모두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작년 출하량은 전년보다 8% 감소했고 애플의 아이폰 역시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 길어져

외신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 이유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이용하면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혁신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은 전자보다 화면이 커지고 부품 사양은 높아졌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가격은 최고 200만 원까지 올라간 매장 예상보다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3억 9000만 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9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 전년에 비해 0.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제품과 확실한 차별화 필요

기존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이 아니면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게 됐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형태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에 시황을 걸고 나선 이유다. 초고용량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는 5G, '혁명'이라 불리며 주목을 이끌어 낸 폴더블폰 등 기존 스마트폰이 구현하지 못했던 크기, 구성, 기능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전문가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IDC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5G

와 폴더블폰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9년엔 그 수치가 크지 않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23년이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25%를 5G와 폴더블폰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SA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대수가 2019년 320만 대로 시작해 2022년 50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5G 지원 '갤럭시S10' 관심 집중

반응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 CNBC는 5G를 지원하는 삼성의 갤럭시S10의 선주문이 기대이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TF 인터넷셔널증권의 밍치 귀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에게 보낸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갤럭시 S10 휴대폰에 대한 2019년 출하 추산치를 3000만~3500만 대에서 4000만~4500만 대로 30% 늘려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믿을 건 혁신으로 무장한 폴더블 스마트폰밖에 없다.

김영정 기자 0jung2@

“5G 콘텐츠 구현에 딱! 비싸도 팔릴 것”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단연 '폴더블폰'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관 속에 전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메이트X'를 보려는 얼리어답터들의 발길이 전시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은 폴더블폰의 혁신에 환호했지만 2000달러(약 227만 원)를 웃도는 폴더블폰의 가격에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의견이 자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폴더블폰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콘텐츠 구현에 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9' 기간 중 박람회장 위에 전시된 5G 로고가 표시된 큐브. 바르셀로나/로이터연합뉴스

줄리 최고경영자(CEO)는 "침체기를 맞았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아직 5G 기술이 상용화되

지난달 열린 'MWC 2019'서 삼성 '갤폴드' 인기 아몬 웰컴 사장 “10년 만에 스마트폰 외형 벗어나”

장 적합한 단말기기이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의 크리스티아누 아몬 사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5G 기술의 등장 덕분에 스마트폰 업체들이 드디어 10년도 더 된 폼팩터(제품 외형)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G 시대의 스마트폰은 스트리밍, 게이밍, 노트북 수준의 생산성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필요하다"며 "폴더블폰이야말로 5G 구현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라고 평가했다.

유통업체들도 폴더블폰의 등장에 기대를 내걸고 있다. 미국 대형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의 휴버트

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폴더블폰이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먼저 소비자의 심판을 받는 건 삼성전자의 갤럭시폴드. 갤럭시폴드는 4월 26일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접었을 때 4.6인치인 스마트폰이 되고 펼치면 7.3인치인 태블릿이 되는 갤럭시폴드의 출시가는 현재 1980달러로 책정됐다.

삼성전자의 뒤를 쫓는 화웨이의 메이트X는 아직 정확한 출시일을 밝히지 않았다. 메이트X의 출시가는 2299유로(약 293만 원)로 책정된 상태. 접으면 6.6인치인 대형 스마트폰, 펼쳤을 때 8인치 스크린의 얇은 태블릿으로 탈바꿈한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신한·삼성·롯데카드로 '현대·기아차' 못 산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인상 일괄 협상 불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상 일괄 협상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협상에 성공했지만, 카드업계 1위와 2위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현대차가 '가맹 해지'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신한과 삼성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달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현대·하나카드 등 일부 카드사와 현대차가 진행 중인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한과 삼성, 롯데, BC카드와 최종 협상은 답보 상황이다. 다만 BC카드는 14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한과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각각 시장점유율 23%와 16%, 11% 수준이다. 이날까지 협상안 합의에 최종 실패하면 전체 카드 사용자 절반이 본인 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반면 KB국민과 현대, 하나, NH농협, 씨티카드와의 수수료율 협상은 마무리했다. 이날은 현대차가 앞서 수수료를 협상

국민·현대·하나·농협·씨티
수수료율 0.05% 인상안 합의
BC, 14일까지 가맹 해지 유예

대형 할인점, 평균 0.14% 인상안
영업 손실 고려 점점 도출 가능성

마감 시한으로 정한 날이다. 카드사와 현대차는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카드사는 기존 수수료율에서 0.09%가량 인상한 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기존 수수료율 수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버텼다. 하지만, 8일 현대차가 최대 0.05% 인상안을 제시하자 대부분의 카드사가 해당 안을 수용해 이날 합의에 성공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신한, 삼성, 롯데, 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와 합의했다.

일부 카드사가 현대차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다른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을

현대차 카드수수료 분쟁 현황

일시	내용
1월 말	주요 5개 카드사 '3월 수수료율 인상' 통보
3월 1일	5개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4일	현대차 "10일 카드 가맹 해지"
8일	현대차 "1.89% 수준 조정안 제시"
10일	신한, 삼성, 롯데, BC카드 이외 카드사와 협상 완료



정할 때 '가늠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은 원가로 분류돼 영업기밀에 해당한다. 같은 회사라도 개별 카드사와 협상 과정에서 다른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어 수수료율 협상 결과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이번 현대차와의 협상은 세부내용이 공개된 만큼 상위권 카드사는 다른 업종과 협상을 위해서라도 수수료율 인상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사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통신사와도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8일 카드사와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카드사는 대형 할인점에 평균 0.14%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수수료율은 2%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와 달리 유통업계는 카드 가맹 해지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은 카드 결제가 단 하루라도 중단되면 영업 손실이 커 카드사가 제안한 수수료율 인상 범위 안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은 이달 내 종료될 전망이다. 카드사는 1일부터 예고한 수수료율을 각 대형가맹점에 적용해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 이후 대형가맹점과 합의한 수수료율을 역산해 수수료 수입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는 과정을 진행한다. 협상을 계속할수록 서로 부담인 셈이다. 또 여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간접 개입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대형가맹점이 협상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DB금융투자
- DB생명
- DB캐피탈
- DB자산운용
- DB저축은행

“ 내 곁에 DB금융이 있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p>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p> <p>DB손해보험</p>	<p>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p> <p>DB금융투자</p>	<p>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p> <p>DB저축은행</p>
<p>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p> <p>DB생명</p>	<p>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p> <p>DB자산운용</p>	<p>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딩 컴퍼니 -</p> <p>DB캐피탈</p>

뎃 올린 '대우조선 민영화' 통합법인 출범 '암초' 산적

산은-현대중, 본계약 체결

KDB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8일 예정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 기업결합 심사 등 '통합조선법인'이 출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본계약 체결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가 본궤도에 오르기 했지만,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와 지역사회 반대,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해외 경쟁당국 불승인이 앞으로의 과정에서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의 과제는 지역사회와 노조의 거센 반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에서는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인력 구조조정', '협력업체 도산' 등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체결식에도 대조양 노조원 500여명은 산은 앞에서 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앞으로 대조양 실사에 대해 육탄 저지를 통해 이들의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성현 대우조선지회 총무부장은 "지역사회 목소리를 들어 봐도 이번처럼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한 밀실 야합은 반대한다는 게 한결 같은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대우조선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법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현대중 실사가 시작되면 대우조선의 재무적 상황은 물론 각종 특허가 걸린 기술이나 노하우까지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현대중 입장에서는 추후 기업결합심사에서 매각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거제 소재 한 조선사 관계자는 "지

구조조정·협력업체 도산 등 노조·지역사회 거센 반발 해외 경쟁당국 승인도 관건 '2.3%' 수은 영구채 금리 인하 고비 넘겼지만 잠재 부담으로

금 거제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과 거제지역 협력업체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EU, 중국, 일본 등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다"며 "EU는 여러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고, 중국과 일본은 주요 경쟁국의 대형 조선소 탄생에 기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은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같이 국내의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등에서 이미 문제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해외 경쟁당국이 과연 승인해 줄 것이냐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조양이 수은에 발행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문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 이 회장은 8일 "영구채 문제는 적절한 커머셜 베이스 판단에 따라 수은과 현충이 타결했다"고 말했다. 영구채 금리를 낮추고, 출자 전환을 당분간 하지 않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쌓여가는 영구채 이자와, 큰 규모의 출자전환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KARL LAGERFELD

PARIS



20세기 가장 축복받은 천재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KARL LAGERFELD)

2019년 3월 12일 밤 9시45분 CJ오쇼핑 방송

www.CJmall.com / 080-000-8000

KARL LAGERFELD PARIS는 칼라거펠트의 럭셔리 캐주얼 라인으로 특유의 명품 프렌치 감성과 아이코닉한 스타일로 접근하기 쉬운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맹목적인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오는 무드와 일상생활에서 멋스러우면서 실용적이게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정의선, GBC 군살 빼 지배구조 개편 완성 의지

〈현대차 수석부회장〉

사옥 공동개발 실익 세가지

- ① 45조 R&D 자금 확보 숨통
- ② 인도車 증설 등 경영 효율화
- ③ 주주 친화경영 본격적 시작

현대차그룹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을 자체 개발에서 외부투자자와 공동 개발로 선회한 것은 투자금 부담 해소 등 실익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10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외부 투자자와 GBC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경영 효율화'는 물론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에도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먼저 현대차가 중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를 공언한 만큼 투자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재원 마련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2023년

까지 R&D와 미래 기술 등에 45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매년 9조 원 규모다. 3조7000억 원에 이르는 GBC 개발자금 부담이 외부자금 유치로 완화되면 R&D 투자금 확보는 더 수월해진다.

둘째, 경영 효율화도 대표적인 시너지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중국 시장 구조조정안을 내놓는다. 올해 중국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한쪽에서는 마른 수건을 짜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효율성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공장 증설이 예고돼 있는 인도에서 차량공유 기반 택시서비스 업체 올라(ola)에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투자한다. 생산 축소·철수(중국)와 전략적 투자 확대(인도)를 동시에 추진하며 경

영 효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셋째, 주주 친화적 경영전략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 완성의 의지도 담겨 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이 GBC 부지를 무리하게 매입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이탈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건 행동주의 펀드 엘리트 역시 "GBC가 현대차의 대표적 '비핵심자산'이다"라고 꼬집으며 경영진을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이 "GBC 부지에 투입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GBC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GBC 공동개발 추진을 암시한 셈인데 이를 시작으로 주주 친화적 경영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지배구조 개편안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의선 수석부회

장 체제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정 수석부회장은 합리적 경영전략과 효율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군살을 제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GBC 자체 개발로 얻을 수 있는 '명분' 대신 공동개발을 통해 '실익'을 추구한 것 역시 정 부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맥을 같이한다.

박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기업설명회에서 CEO(이원희 사장)가 직접 나서서 과거 전략과 변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투자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투자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투자자들을 고려하는 주주 친화 경영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LG '기업 평판' 삼성·애플 제치고 글로벌 48위

RI 집계...2년 연속 톱 50위
롤렉스 1위...레고·디즈니순

2019년 글로벌 평판 100대 기업

순위	기업명
1위	롤렉스
2위	레고
3위	디즈니
4위	아디다스
5위	마이크로소프트
...	...
48위	LG
52위	삼성
57위	애플

※ 출처: 국제 기업평가 컨설팅업체 RI



LG전자 모델들이 8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행사에서 고객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교감할 수 있는 LG 클로이 케어봇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가 전 세계 주요 기업의 평판 순위에서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2년 연속 50위권에 들었다.

LG는 10일 국제 기업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인 'RI(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19년 글로벌 평판 100대 기업' 48위에 올랐다.

지난해(41위)보다 7계단 하락했으나 2년 연속 '톱 50'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 등급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우수(strong)'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월플(51위), 삼성(52위), 파나소닉(54위), 아마존(56위), 애플(57위), 지멘스(60위), 일렉트로룩스(67위) 등을 모두 앞질렀다.

삼성은 지난해보다 26계단 떨어진 52위에 그쳤다. 삼성은 2015~2016년 2년 연속 17위에 올랐지만, '갤럭시노트7 발화 사

태' 등의 여파로 2017년 70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지난해 삼성은 26위로 치솟으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또다시 주춤했다. RI는 보고서에서 삼성의 순위 하락 이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IT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14위)은 해

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톱 10'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마존은 작년 23위에서 올해 56위로 주저앉았다. 파나소닉도 지난해보다 25계단 떨어진 54위에 그쳤고, 페이스북은 100위 내에도 들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순위가 하락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노조 외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업 평판 '글로벌 톱 10'에는 롤렉스와 레고가 지난해에 이어 각각 1, 2위 자리를 지켰다.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마이크로소프트가 3~5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신형 QLED TV 유럽 출시

삼성전자는 7일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테크 세미나'에서 2019년형 QLED TV를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8년째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테크 세미나는 영상·음향 분야 전문 매체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삼성 TV의 최신 기술·서비스를 소개하고 참석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다.

7~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유럽 행사에서는 2019년 QLED TV에 도입된 △초고화질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화질엔진 '퀵 프로세서' △고해상도 게임에서도 지체 없고 빠른 장면 전환이 돋보이는 '게임 모드' 등이 주목 받았다. 삼성전자는 2월 미국에 이어 3월에는 유럽 42개국과 한국 시장에 2019년형 QLED TV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전자는 QLED TV를 앞세워 전 세계 2500달러(약 284만 원)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44.3%, 75형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 54.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갤럭시 게임 개발자 지원 강화

삼성전자가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전용 게임 개발 콘텐츠 마련을 위한 개발자 지원을 강화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인 'GDC(Game Developers Conference) 2019'에 참가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삼성과 함께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발자가 폴더블폰 등 새로운 폼팩터를 활용한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도움말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양한 전문가 세션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용 게임 개발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10 주년을 맞아 갤럭시 스마트폰을 최대 게임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갤럭시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된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 역시 게임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송영록 기자 syr@

SK이노 배터리 조직 개편...中 공략 힘 신는다

해외 총괄 PM실 신설 마케팅본부 별도 편성 산하 중국 사업실 배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선다.

1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사업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 개편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조직은 PM(Project Management·프로젝트 매니지먼트)실을 신설하고 마케팅본부를 별도 편성하는 등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조직 구성을 좀 더 세분화·체계화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PM실의 신설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글로벌 프로젝트가 많다"며 "해당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챙기기 위해 PM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배터리 생산라인.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M실은 SK이노베이션이 해외에서 벌이는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화는 마케팅본부, 중국사업실의 별도 편성이다. 과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사업본부 내에 마케팅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마케팅본부를 따로 편성하고 산하에 마케팅실과 중국사업실을 배치했다. 특히 마케팅본부 아래 중국사업실을 별

도로 편성해 배치한 점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에 있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년 중국 정부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상황을 대비해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정책 등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지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밖에 구매실, 품질보증실이 별도로 편성됐다. 해당 조직들은 기존부터 SK이노베이션 내에 존재하고 있었고 담당하고 있던 업무 분야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셈이다. 이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까다로운 선진 시장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회사의 신성장동력인 배터리 사업 조직을 강화,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LG 빌트인, 美 최고 오븐 선정

LG전자의 빌트인 오븐이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매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오븐'에 뽑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2019년 최고의 월 오븐(빌트인 오븐)"에서 LG전자의 빌트인 오븐(90점)을 1위로 선정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오븐의 유리면이 크기 때문에 조리 중인 음식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조리와 자동세척 기능도 탁월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가격 역시 1640달러(약 186만 원)로 가장 저렴했다. 2위와 3위는 모두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제품으로 각각 89점, 87점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두 개의 오븐이 위아래로 붙어 있는 '더블 월 오븐' 부문에서 3위로 선정됐다. 이 부문 1위는 GE, 2위는 키친에이드(Kitchen Aid)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내가 만든 수제맥주 한잔할래?” 캡슐형 가전의 진화

커피 넘어 아이스크림 등 다양화
1인 가구·소확행 트렌드 영향
LG 홈브루, 한번에 5리터 제조

캡슐형 소형가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캡슐형 커피머신에서 벗어나 한방차와 수제 맥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내는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캡슐형 가전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10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시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 페스티벌 SXSW(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캡슐형 아이스크림 제조기 ‘스노우화이트’를 전시했다.

스노우화이트는 소르베, 젤라또 등 아이스크림 종류를 결정하는 베이스 캡슐, 맛과 향을 결정하는 플레이버(flavor) 캡슐 2가지를 조합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기기다.

LG전자 관계자는 “스노우화이트는 아이디어 제품이라 B2B(사업자와 사업자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19 LG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모델이 캡슐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간 거래)로 출시할지 B2C(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제품으로 내나 직접 소비자를 타겟으로 판매에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정식으로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9에서도 또 다른 캡슐형 가전을 선보인 바 있다. CES에서 공개한 ‘LG 홈

브루’는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 맥주 제조기이다. 사용자는 LG 홈브루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발효와 숙성 과정을 포함해 2~3주 만에 5ℓ의 최고급 맥주를 완성할 수 있다.

LG전자는 홈브루에 △발효에 필요한 온도와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

맥주 보관과 숙성을 위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 등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캡슐형 가전은 주로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기였다. 커피가 가장 많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캡슐형 커피머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는 2016년에 이미 10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캡슐형 소형가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는 최근 가구구조 형태와 연관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6%를 기록했고 올해는 3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소비하는 ‘소확행’ 트렌드 또한 캡슐형 가전의 다양화에 한몫했다.

가구구조·소비 트렌드 변화로 캡슐형 가전의 종류는 다양해질 전망이다. 스타트업 메디프레스는 지난해 한방차와 블렌딩 차를 기존 커피캡슐처럼 간편하게 추출해 마실 수 있는 메디프레스 한방 캡슐 6박스과 전용 에스프레소 추출 머신을 선보이기도 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를 따지는 신세대층과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맞물려 향후 캡슐형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만족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는 가정용 기기들이 꾸준히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주춤 앞둔 현대차 ‘천군만마’ 메이저 자문사, 反엘리엇 권고

글래스 루이스 “사측에 찬성”
중장기 R&D 전략 긍정 반응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미국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엘리엇 대신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추진 때에는 엘리엇의 의견에 찬성한 바 있다.

10일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현대차 주총 의안과 관련해 엘리엇 대신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글래스 루이스는 배당 의안에 대해 사측이 제시한 1주당 3000원(보통주 기준) 지급에 찬성했다. 엘리엇이 제안한 1주당 2만1967원(보통주 기준)에는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 루이스는 보고서에서 “이번처럼 대규모 1회성 배당금을 지급해 달라는(엘리엇 측의) 제안에 대해 주주들에게 지지를 권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대차가 경쟁력 향상과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당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잠재적 인수합병(M&A)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 입장에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다. 1회성 배당 확대가 주주에게 단기 이익을 더해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기업의 생존 전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글래스 루이스는 지난해 5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현대모비스 분할 및 합병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현대글로벌비스 주주들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라며 배경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해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가 잇따라 엘리엇의 주주제안을 찬성하자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급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전체에 대한 찬성이 아닌, 현대차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회사의 중장기 R&D 전략과 적절한 배당 확정 등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판교 현대백 U+ 라운지 오픈
‘브라보’ 등 IPTV 콘텐츠 시연

LG유플러스는 IPTV와 U+tv 프리, AIoT 등 스마트홈 서비스를 총망라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U+라운지’를 판교 현대백화점 10층 토포스홀에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은 17일까지다.

661㎡(200평) 규모 홈서비스 체험 팝업스토어에서는 △영유아 맞춤형 IPTV로 키즈서비스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한 ‘아이들나라’ △국내 유일 TV로 크게 보는 ‘넷플릭스’ △건강에서 여행, 취미, 창업 정보까지 한 곳에 모은 ‘브라보라이프’는 물론 스포츠 중계 서비스 ‘U+프로야구’, ‘U+골프’ 등 IPTV 주요 서비스를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시연하고 설명하면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U+라운지 곳곳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프렌즈 플러스 미니’가 설치돼 음성으로 편리한 VOD 검색, IoT 기기 제어 체험이 가능하다. 또 IPTV 체험존 내 로보카폴리, 뽀로로, 공순이 등 캐릭터 모형을 함께 전시하거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킹덤’, ‘기묘한 이야기’ 세트장을 구현해 고객이 서비스별 주요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팝업스토어에 마련된 고객 휴식공간에는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무선으로 자유롭게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셋톱박스 일체형 단말 ‘U+tv 프리’를 배치했다. 집안 어디에서나 편하게 221개 실시간 방송과 18만 편의 VOD를 감상하는 서비스 강점을 휴식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한미약품
광고심의번호: 2018-1455-004400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소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28가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나인나인[®] 정

24h 하루 한알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승차공유’ 갈등불시 여전... 정치인들 규제개혁 힘써야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⑬ 한상우 ‘위즈돔’ 대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감옥에 보내겠다는 분위기였다. 법인 설립 10년째인 지금, 공유 버스 플랫폼 운영은 순조롭지만, 승차 공유와 관련한 법은 한 발짝도 진보하지 않았다.”

공유 버스 플랫폼 ‘위즈돔’은 올해로 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한상우(45) 위즈돔 대표가 스스로 ‘승차 공유’의 시조새라고 칭하는 이유다.

2009년 법인 설립 이후 2010년 ‘e버스’를 론칭한 위즈돔은 2011년 버스 업계의 형사 고소 움직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위기를 겪었다. 여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에 2013년 정부로부터 노선 면허를 받아 역경을 극복했다. 그러나 e버스의 재개와는 별개로 승차 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카카오와 택시 단체 간 배량 할의가 내려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승차 공유 업체들과 파고를 함께 넘고 있는 한 대표를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위즈돔 사무실에서 만났다.

카카오와 택시 단체 간 막판 합의가 한창이던 이날 한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상식과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입법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이다. 한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법도 진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는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싸워 보라, 중재할게’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대표는 관료들에게 연민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일개 관료들이 할 수 있겠냐”며 “정치인, 장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카카오가 인기 좋을 때는 정치인, 시장, 도지사 할 것 없이 옆에서 사인을 찍었는데 이제 카카오가 분란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뒤로 빠져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왜 업자끼리의 싸움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씨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을 거쳐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 2009년 초중고 단짝과 함께 위즈돔을 설립했다. 2010년 세계 최초로 고객들이 직접 모여 노선을 정하는 ‘e버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서비스는 전세버스 회사 측의 반발로 2011년 중단됐다. 여론과 지역구 의원들의 지원에 힘



한상우 위즈돔 대표가 4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카카오 인기 좋을 땐 옆에서 사진 찍더니 카풀 문제 되자 외면” 2009년 ‘e버스’ 첫 서비스... 전세버스 업체 반발에 중단되기도 현재 하루 10만명 이용... 올해 관광·레저 영역으로 사업 확장

입어 2011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이끌었고, 2013년 노선 면허를 받는 데 성공했다. 현재 SK, 한화, CJ, 카카오 등의 통근버스를 스마트화해 200여 대의 대형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아이보스(AIBOS)’라는 버스 관제

·관리·운영 사업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매달 20일 오전 10시가 되면 통근버스를 예약하는 창이 열리는데 5분 안에 전 좌석이 매진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셔틀버스 중개 앱 ‘모두의셔틀’이 월 단위라면 위즈돔은 일 단위로

결제할 수 있다. 위즈돔이 관제, 관리하는 통근버스는 일일 1000대가량으로, 하루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올해 목표는 관광, 레저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이달 29일 개막하는 서울모터쇼를 시작으로 록페스티벌, 프로야구, 겨울의 스키리조트까지 위즈돔은 이들과 협약을 맺고 전용 셔틀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여행사 ‘노랑풍선’의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 사업도 시작한다.

가장 힘을 주는 부분은 경기도 프리미엄 광역버스다. 스마트 광역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위즈돔은 지난해 6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스마트버스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기대가 크다”며 “10년을 준비한 프리미엄 광역 버스는 하늘이 무너져도 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누적 투자액이 350억 원에 달하는 위즈돔은 2021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상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하루에 100만 명의 고객을 실어나르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목표”라고 했다.

한 대표는 “좋은 버스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결국, 공유 버스는 지구온난화를 막아 북극곰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

사내독립기업 증가로 중간관리자급 ‘책임리더’ 신설 임원·주요 인재 637명에게 83만7000주 스톡옵션

최근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로봇틱스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네이버가 2년 만에 ‘임원제’를 부활시킨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급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네이버는 ‘책임리더’ 직급을 신설하고 분사 및 계열사에서 68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급 사이에 신설되는 중간관리자급 직책으로, 비동기 임원으로 분류된다. 해마다 계약을 새로 하고,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갖는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1월 상법상의 필수 임원(등기이사·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임원 직급을 전격 폐지했다. 빠르고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야 하는데, 공식 직함이 소통에 되레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능력 중심의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당시 비동기 임원 30여 명은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나 ‘정규 직원’으로 직급이 바뀌었다. 중간관리

자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 ‘리더’라는 지위를 줬다.

하지만 네이버는 최근 경쟁업체들의 범람 속에서 회사의 신규 투자를 늘리게 됐고,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로봇틱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직원 숫자가 그만큼 증가했다.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직원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시 임원급 중간관리자를 뽑게 됐다. 설명이다.

무엇보다 각 사업 부문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향후 분사까지 염두에 둔 CIC(Company in Company·사내독립기업)가 증가하면서 책임리더 직급 신설이 시급해졌다. 현재 네이버에는 검색·인공지능(AI)과 사용자생산콘텐츠(UGC) 등 총 7개의 CIC가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CIC 대표를 보좌할 중간관리자급이 필요하다는 자체 평가 있었다”며 “발전 가능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가형 리더가 발굴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에 임원제가 다시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임원 및 주요 인재 637명에게 총 83만7000주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한성숙 대표에게는 2만 주, 최인혁 COO에게는 1만 주를 각각 주고, 나머지 635명에게 80만7000주를 배분한다.

다만 해당 스톡옵션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10일 연속으로 지난달 27일 기준 주가(12만8900원)의 약 1.5배인 19만2000원을 기록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렸다. 파운더십(창업가 정신)이 있는 리더들에게 도전의식을 갖게 해주는 인센티브로 풀이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라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라인, 웹툰, 스노우 등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낸 ‘창업가형 리더’들이 네이버의 글로벌 도약을 만든 만큼 더 큰 성장을 위해 스톡옵션과 책임리더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융합보안, 블록체인 등 2019년도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융합보안 선도전략 마련할 것”

자동차 등 6대산업 보안 강조

“사이버 침해로 인한 피해는 물리적 손해와 인명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보안까지 신경 써야 한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국민생활 안전에 밀접한 주요 6대 융합산업 분야로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통·물류 등을 선정했다.

김 원장은 보안 시스템 구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보안이란 물리적 기반에 사이버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융합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모델 발굴, 융합제품 보안내재화 확산, 기기·인프라 보안 강화 대책 등 융합보안의 선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G 기술 상용화에 따른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통신 속도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기의 연결성 증가로 보안 취약점이 상호간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5G 상용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이동통신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5G 보안 협의회가 설립됐다”며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도 보안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진흥원은 4차 산업과 융합보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부터 범위의 역할의 재정립도 추진한다. 김 원장은 “올해 5G 이동통신망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장비의 기반시설 지정 타당성 검토와 지정용 확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친 신성장동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전문가 그룹 등 정보보호 전문 자문단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 전문 펀드 유치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타다, 모든 차량에 공기청정 필터 적용

바이씨앤씨(VCNC)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초미세먼지 98% 이상을 걸러낼 수 있는 공기 청정 필터를 전 차량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와 승객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걱정 없이 타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타다 차량에 장착되는 필

터는 세계 최초 차량용 해파 콤비 필터를 개발한 루프트(LUFT) 코리아의 ‘루프트(LUFT) 차량 전용 HEPA 필터’로, 0.3 μm 크기의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를 98% 이상 제거해 차량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 μg/m³ 이하로 유지한다.

해당 공기 청정 필터는 지난해 11월 말 블랙 색상의 차량으로 운영된 ‘타다 베이

직 B’에 추가 옵션으로 시범 적용됐다.

이용객, 드라이버들의 호응과 요청에 따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필터 장착이 완료된 타다 차량에는 탑승석 오른쪽 창문에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다.

타다의 가장 기본 라인업인 ‘타다 베이직’을 시작으로, 4월 출시 예정인 ‘타다 프리미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누구나 안심하고 청정구역이 실현된 타다 차량을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입국장 면세점 1호 외국계에 안기나

운영사업자 입찰 中 企에 한정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
국내기업과 합작 입찰 참여
자본력 앞세워 우위 점할 듯



현대백화점 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의 향방이 14일 결정됨에 따라 세계 1위 면세점 듀프리외 손잡은 '듀프리토마스졸리코리아'가 선정 될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은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때문에 세계 1위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업계의 논란이 계속돼 왔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력 사업자로서 거론되는 듀프리토마스졸리코리아는 듀프리가 45%, 국내 업체인 토마스졸리가 55%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관련 규정을 비슷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 자격 요건을 갖춰 이번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입찰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사업자 선정 시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6대 4로 반영한다. 업계는 듀프리가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만큼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듀프리가 사업권을 따냈다"며 "듀프리가 자본력을 앞세워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프리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매출 대비 38%의 입찰 금액을 제시해 최종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에도 부산 지역 상공인들은 "세계 1위 면세점이 합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둔갑해선 안 된다"며 듀프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에 듀프리가 입국장 면세점까지 차지하게 되면 듀프리가 국내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비용이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에서는 듀프리의 존재나 입국장 면세점이 업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은 외국인 매출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중국인이 70~80%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개 인터넷에서 먼저 상품을 주문한 뒤 시내 면세점에서 찾아가는 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다 해도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9조 원을 넘어선 국내 면세점 매출은 외국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커졌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100평밖에 안 되고, 담배 판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면세점 업계가 긴장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 업체는 10여 개사로 알려졌다.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 사이에서 다른 수도권 내 면세점보다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입대로 부담과 담배 판매 제한으로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새로운 매출 창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입국장 면세점 신설로 인한 구매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초저가 승부 전 대형마트...실적은 '글썩'

신선식품 공세 집객효과 기대
일부상품 역마진 발생 우려
점포효율 악화...이익 줄 수도

대형마트의 초저가 전쟁이 불붙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공세로 빼앗긴 고객들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구매 주기가 짧은 신선식품을 초저가 판매 상품에 대거 포함해 집객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마트가 연초부터 과격적인 가격에 내세운 '국민가격' 프로젝트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자, 롯데마트도 품격(품질과 가격) 프로젝트로 최저가 행진에 동참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도 '고기 대방출' 등으로 가세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초저가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국민가격'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행사를 통해 매일 1, 3주 차에 농·수·축산 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선정해 일주일 동안 40~50% 할인해 판다. 참고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강화한다. 이달 14일 서울 첫 점포인 월계점을 시작으로 올해 총 3곳의

이마트 오프라인 실적
(단위: 억 원, 트레이더스·온라인 제외)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2017년	11조6828	5976
2018년	11조4943	4397
2019년(추정)	11조6667	4638

※출처: 신영증권

출점이 예정돼 있다.

롯데마트도 올해 판매 주제를 '품격'으로 정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 가운데 신상품과 행사상품을 싸게 내놓는 '가성비의 답'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7일 삼치·참치데이를 맞아 13일까지 시세 대비 약 30~40% 저렴하게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3월 한 달간 대대적으로 과격적인 할인 행사를 연다. 13일까지는 '쇼핑하다 2019' 행사의 일환으로 육해공 고기를 다 모아 싸게 파는 '고기 대방출' 기획전을 마련했다.

대형마트의 초저가 전략은 출점 절벽과 고객 감소에 따른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절치부심의 카드다. 할인 상품 구매를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다른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확실한 '미끼'가 될 것이라는 포석이 깔린 것이다.

일단 초저가 전쟁 초반 매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이마트가 '국민가격'을 붙이고 판매한 삼겹살·목심, 전복, 계란 등은 완판을 이어갔고 품격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롯데마트의 매출 역시 25% 넘게 뛰었다. 홈플러스 역시 '쇼핑하다 2019' 행사를 시작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점포 방문객 수는 평소 주말보다 13%, 매출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저가전략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출 총액은 늘어 나지만 일부 상품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초저가 전략을 쓰면서 방문객 수는 증가하지만 점포 효율은 떨어질 것"이라며 "제살 깎아먹기가 계속되면서 올해 이익 개선 폭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영증권은 올해 오프라인 이마트의 매출을 11조6667억 원으로 2017년 11조6828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38억 원 줄어든 4638억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



봄향기 향긋한 회덮밥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 기업 현대그린푸드(주)가 운영하는 전통 일식 회전문 브랜드 '본가스시'에서 제철 나물을 곁들인 '봄나물 활어회 덮밥'을 봄 한정 메뉴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봄나물 활어회 덮밥'은 기존 활어회 덮밥에 봄 제철 나물인 달래, 세발나물, 돌나물 등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판매 가격은 1만5000원으로 내달 30일까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에 입점된 전국 15개 본가스시 매장에서 판매한다. 사진제공 현대그린푸드

무인 편의점, 주유소와 랑데부

서울 강서구 하이웨이주유소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첫 오픈



김영혁(왼쪽 두 번째) 세븐일레븐 경영전략부부장 등 관계자들이 8일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하이웨이주유소점에서 오픈 기념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 세븐일레븐

무인 편의점과 주유소가 만났다.

세븐일레븐은 에스오일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OIL 하이웨이주유소(서울 강서구 공향대로 소재) 내에 국내 주유소로는 처음으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 모델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와 에스오일(S-OIL) 주유소의 결합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99.2㎡(30평) 규모의 이 주유소는 IT 기술이 접목된 카페형 콘셉트로, 주유소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가격 태그와 고화질 CCTV, 유인·셀프 복합 결제단말기(POS), 직원 호출 시스템 등을 갖췄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세븐일레븐은 고객에게 새롭고 재밌는 쇼핑 경험

을 제공하고, 경영주에게는 최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형 편의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세븐일레븐의 미래형 디지털 플랫폼은 다양한 상권에서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여행에 딱! '캡슐 화장품' 전성시대

봄 여행 상품 판매 ↑ ...웰라주 1회분 앰플·달팡 오일캡슐 등 출시



화장품이 휴대가 간편한 캡슐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나를 위한 소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자 휴대성이 높은 화장품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서울 낮 기온이 영상 11도까지 올랐던 지난 달 22일부터 일주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봄 여행 상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행 수요가 늘자 뷰티 업계는 휴대하기 좋은 1회용 캡슐 코스메틱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파우치 무게까지 줄여주는 캡슐형 화장품은 다양한 기능성까지 갖췄다. 또 공기 중에 노출되면 변하기 쉬운 고농축 성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원데이키트'는 개별 포장된 순수 고농축 히알루론산 캡슐에 1회분의 블루루션 앰플을 넣어 액상 형태로 녹여 바르는 수분탄력 캡슐 앰플이다. 동결건조 방식을 통해 고농축 캡슐로 제조한 리얼 히알루로닉 바이오캡슐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의 부스팅 앰플인 블루 솔루션 앰플이 더해진 제품으로 히알루론산 캡슐이 들어 있는 오목한 용기에 앰플을 넣은 후, 캡슐이 잘 녹도록 섞어서 사용하면 끈적임 없이 바로 흡수된다.

달팡의 '아이디얼 리소스 유스 리뉴잉 오일 컨센트레이트'는 주름을 개선하는 유스 엑티베이팅 레티놀 성분과 영양이 풍부한 호호바 오일을 에어 캡슐에 담아 피부 턴오버 주기를 촉진하고,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레티놀이 함유되어 나이트 케어용으로 추천되

며, 낮 시간에 사용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AHC 프로 바이탈 골든 캡슐 앰플은 미백 기능성 성분인 '알파-비사보롤'이 함유된 칩 칩한 피부 톤을 밝혀 주는 앰플 캡슐이다. 아프리카 월넛 오일과 해바라기씨 오일이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선사하며, 1 세트에 1회분씩 소량 포장된 30개의 캡슐이 들어 있어 1개월 주기로 사용할 수 있다.

여행 파우치에 빠질 수 없는 클렌징 제품도 캡슐 타입으로 만나볼 수 있다. DHC 클리어 파우더 페이스 워시는 3가지 효소가 배합되어 있는 가루 타입 세안제로, 약산성 포물라 자극이 적고,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 물에 쉽게 녹으면서 풍성한 거품으로 변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해 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잡은 최대주주 변경에 불안한 투자자

1년간 두 번 이상 변경 37개사
대부분 최대주주 지분을 낮아
경영 불안에 주가도 하락
디엠씨·화진 등 9곳 거래 정지

일 년간 최대주주 변경 공시 기업

거래정지 종목		종목명		변경횟수	
디엠씨	5	디지털옵틱	2		
씨엔플러스	3	해덕파워웨이	2		
화진	3	지투하이소닉	2		
에이앤티앤	2	바이오빌	2		
KJ프릭	2				

주가등락률		
종목명	변경횟수	증감률
유테크	2	-72.88%
디에이테크놀로지	2	-76.42%
인터볼스	2	-77.36%
인트로메딕	2	-80.82%
퓨전데이터	3	-89.53%

일부 상장사들의 잡은 최대주주 변경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회계감사 시점인 만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경된 상장사가 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인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사례는 코스닥 기업이 월등히 많았다. 롯데케미칼, 대한제강, BGF리테일, 삼부토건 등 코스피 상장사 6곳을 제외한 31개사는 모두 코스닥 기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박용 크레인을 제작하는 디엠씨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최대주주의 이름

이 5번 변경됐다. 씨엔플러스와 비츠로시스, 퓨전데이터, 버킷스튜디오도 3회 이상 교체됐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된 썬코어, 위노바, 아이이 등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전 최대주주가 수차례 변경된 바 있다.

실제 디엠씨, 씨엔플러스, 화진, 에이앤

티엔, KJ프릭, 지투하이소닉 등 9곳은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디엠씨는 유상증자, 회생채권 출자 전환 등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대주주가 두 번 바뀌기도 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실제 37개사 중 29곳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진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메타센스로 장내매수로 주식을 취득해 4.1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퓨전데이터 역시 주식회사 브라보라이프가 지분을 4.82%로 최대주주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불안정한 경영권은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거래가 정지된 기업을 제외하고 이들의 주가는 일 년 사이 평균 27%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해 3월 8070원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퓨전데이터는 현재(8일 종가) 845원을 기록하며 약 90% 하락했다. 인트로메딕(-80.82%), 인터볼스(-77.36%), 디에이테크놀로지(-76.42%) 등도 주가가 반토막 상태다.

최성환 리서치알용 연구원은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은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73%가 사전에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M&A(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웰빙키친 이어 ‘산소케어’로 제2 도약”

CEO 인터뷰

이진희 자이글 대표

“신성장동력인 산소마스크 제품을 선보였다. 자이글 그릴, 산소마스크 등 친환경 콘셉트로 아이디어,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

이진희(사진) 자이글 대표는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이글의 대표 제품은 적외선 가열로 상하부에서 이중 조리가 가능한 ‘자이글 그릴’이다. 냄새, 연기, 기름튀 등이 없는 이른바 ‘웰빙키친’을 내세워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흡소풍을 중심으로 히트를 치면서 2016년 코스닥 상장까지 이어졌다. 국내 판매 호조를 기반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특허를 획득했다. 이진희 대표는 “2008년 적외선 가열



항노화·속기미 등 피부개선 효과 국내 최초 ‘산소케어 마스크’ 출시

조리기에 대한 국내 첫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내부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등 고객의 웰빙라이프를 위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계성

공 전략으로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자이글은 미래 먹거리로 미용기기를 선택했다. 국내 최초 산소케어 마스크인 'ZWC 산소뷰티마스크'를 개발해 출시했다. 45가지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피부개선 효과도 입증했다고 설명한다.

이 대표는 “산소를 피부에 직접 분사해 집에서 15분 정도에 산소테라피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 효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항노화, 속기미 등에 고민이 있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산소케어 ZWC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도 구상하고 있다. ZWC 산소뷰티 마스크에 LED를 결합한 제품과 탈모방지 오투커버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는 “웰빙키친 사업에 이어 ‘산소’를 테마로 다시 한 번 성장하겠다”며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기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웰빙 라이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큰돈 없어도 사모펀드 투자한다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 펀드 해외자산 산정기준도 변경

일반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신탁회사가 투자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펀드를 사고 팔 때 적용되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시점은 해외자산의 경우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 과제를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 원) 기준이 사라진다. 애초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 원으로 대규모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방식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금지돼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신탁업자도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연기금과 공제회처럼 일임 투자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 방안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격 산정 절차를 개편해 해외 주식·채권 등의 경우 기준가 반영 시점을 ‘당일’에서 ‘영업일’(T+1)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채권 평가회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자산의 경우 사무관리회사가 기초자료를 오후 8시쯤이나 받아 업무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때가 적지 않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사업비 조달 방법에 대한 규제도 일부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회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부동산 위탁자의 금전신탁은 사업비의 15% 이내로 각각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회사 고유계정 차입과 부동산 위탁자 금전신탁을 합해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동일 펀드 재가입 시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신탁업자의 신탁운용보고서 교부 방법을 ‘서면·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율리 투자자문·일임업자가 6개월 이상 영업 등의 등록 유지요건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해 부실업체의 적기 퇴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고종민 기자 jim@

박순석 회장 지분 100% ‘그린씨엔에프대부’·‘신안캐피탈’

직원은 7~8명인데... 내부거래로 연매출 100억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신안그룹

신안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집단 기준인 자산 5조 원 넘지 않아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임직원 수가 10명 이하인데도 매년 내부거래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계열사도 있다.

신안그룹은 박순석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 대부분 계열사의 지분은 박 회장과 그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신안, 그린씨엔에프대부 등이 확보한 형태다. 특히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린씨엔에프대부와 신안캐피탈은 내부거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995년 설립된 그린씨엔에프대부는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대금회수 및 이와 관

신안그룹 내부거래

그린씨엔에프대부 (단위: 억 원)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내부거래	영업이익	매출	내부거래	영업이익	매출	내부거래	영업이익
	204	176	101	191	172	93	-48	-5	12
	93.62%	97.72%	92.07%						

신안캐피탈 (단위: 억 원)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내부거래	영업이익	매출	내부거래	영업이익	매출	내부거래	영업이익
3	3	4	2	3	4	-9	-13	-14
66.66%	100.00%	100.00%						

련된 신용조사 업무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흥미로운 대목은 임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10명이 넘은 적이 없는 이 회사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 대부분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린씨엔에프대부의 내부거래 비율은 △2015년 93.62%(204억 원 중 191억 원) △2016년 97.72%(176억 원 중 172억 원) △2017년 92.07%(101억 원 중 93억 원) 등이다. 매년 매출액의 90%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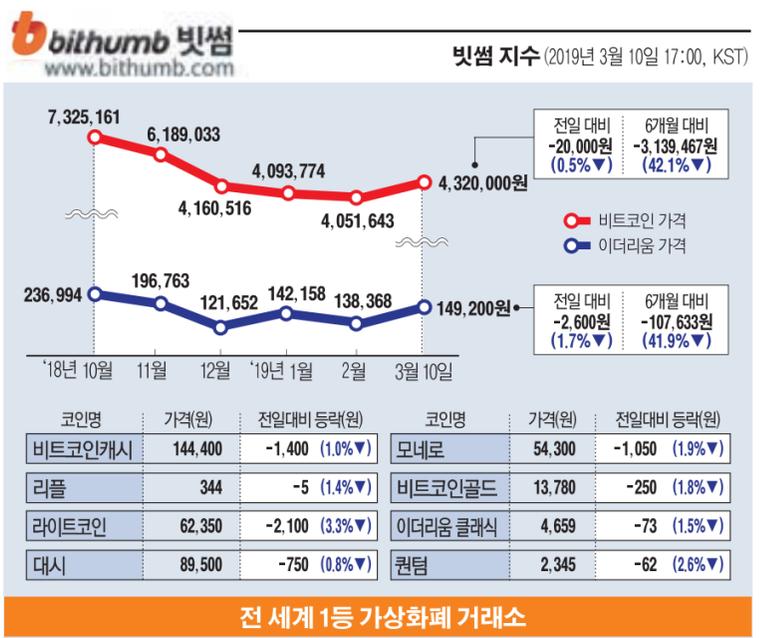
신안캐피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린씨엔에프대부와 같은 시기인 1995년에 세워진 신안캐피탈은 소프트웨어사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 역시 2017년 기준 임직원 수는 8명이다.

그린씨엔에프대부보다 매출은 작지만 내부거래 비율은 △2015년 66.66%(3억 원 중 2억 원) △2016년 100%(3억 원 중 3억 원) △2017년 100%(4억 원 중 4억 원) 등으로 사실상 매출 전체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건설·금융·레저·화장품 등 다양한 사업군의 22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신안그룹은 박순석 회장이 1983년 서울 동대문구 목동에 설립한 신안에서 출발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신안개발, 신안리조트, 신안관광개발 등을 설립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부동산 한파에도 신고가 경신한 '경희궁자이'

GTX-A·도심 인프라 혜택·사대문 안 유일한 대단지 '3박자'
서울 아파트값 조정장세에도 116.98㎡ 2억 웃돈 붙어 21억

서울 강남 아파트들이 전 고점에서 수익 원 하락한 값에 거래되고 있지만 광화문 등 도심과 인접한 곳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 116.98㎡가 지난달 중순께 21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9억 원에 거래된 것보다 2억 원 웃돈이 붙은 가격이다. 거래 시기는 서울시가 1월 21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GTX-A 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계획의 대표 수혜 단지로 지목된 곳이 경희궁자이였다.
전용 84.83㎡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15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현재 같은 평수가 저층 14억5000만 원에서 고층 1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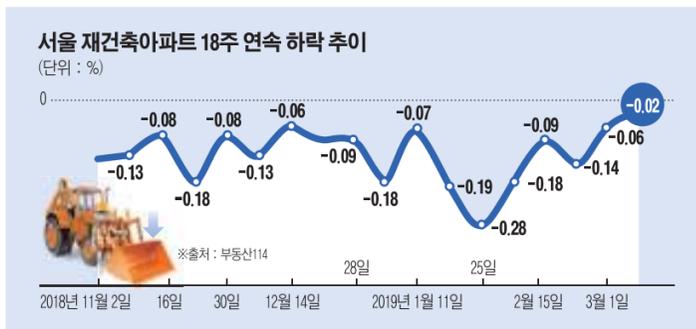
원 사이 호가로 매물이 나와 있다.
경희궁자이는 서울 사대문 안의 유일한 대단지(2415가구)로 돈의문뉴타운을 재개발해 지어진 단지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사대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 여러 지선·간선 버스 노선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기 쉬운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광화문·시청·을지로 도심 인프라를 인근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단지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강북권 대장주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단지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광화문 근처에 유일하게 있는 대단지라는 점도 있지

만 2017년 지어진 신축이라는 점도 큰 메리트다"며 "종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잘 없다 보니 부각되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종로는 최근 10여 년간 아파트 공급이 3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단, 현장에선 전용 116.98㎡의 21억 원 거래가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었다.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경희궁자이도 서울 아파트 조정장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며 "2월 신고점을 찍은 거래가격이 너무 높아서 의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더디긴 하지만 조정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세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종로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시세가 처음 약세로 돌아선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종로는 0.09% 하락했다. 서울이 1.30%, 강남구가 3.49%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한편, 경희궁자이에서 지하철 3호선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서대문구 흥제삼성래미안도 전용 114.75㎡가 2월 중순께 8억 5500만 원에 팔려 지난해 9월 찍은 고점(8억 원)을 돌파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8주 연속 하락

2012년 이후 최장 기록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 2.4% ↓
전세가 하락 폭은 소폭 줄어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1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18주간 서울 재건축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2.4% 하락으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의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지난해 하반기에 매입한 사람은 최소 수천만 원을 손해를 봤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내려가 16주 연속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매매 가격은 각각 0.08%, 0.03% 떨어졌다. 서울은 중랑(0.02%)과 종로(0.02%)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다. 중랑과 종로의 상승세는 저평가 요인과 더불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나머지 지역은 성북(-0.12%), 양천(-0.10%), 강서(-0.08%), 서초(-0.07%), 송파(-0.06%), 관악(-0.05%), 강남(-0.04%) 순으로 내려갔다. 강남 3구와 강북권 일부에서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매물이 쌓였지만 거래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북은 정릉동 길음뉴타운10단지 1000만 원, 하월곡동 래미안월곡1차, 꿈의숲푸르지오 등이 250만~4500만 원 하락했다. 양천은 재건축 지연에 따라 목동신시가지가 1000만~2500만

원 떨어졌다. 강서는 염창동 염창1차보림더하임, 가양동 강남루2차현대, 화곡동 우장산IPARK, e편한세상 등이 1000만~5000만 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광고(-0.50%), 위례(-0.20%), 평촌(-0.13%), 중동(-0.11%), 분당(-0.06%) 등이 내려갔고 이외 지역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거래 절벽 장기화로 시세보다 낮은 금매물에도 매수세가 붙지 못하고 있다.
경기·인천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중심으로만 간간히 거래되면서 매매가격이 조정됐다. 광명(-0.21%), 안성(-0.18%), 평택(-0.15%), 오산(-0.10%), 하남(-0.09%), 의정부(-0.07%), 고양(-0.05%) 순으로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하락했다. 서울이 0.05% 떨어졌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5%, -0.10%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서울 전세가격 하락폭은 전주 대비로는 다소 줄었다.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송파구가 0.09% 상승한 영향이다.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입주 3개월을 맞아 전세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데다 신천동 일대 재건축단지 이주 영향으로 잠실파크리오 전세가격이 500만 원 상승했다. 다만 나머지 지역은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성북(-0.41%), 종로(-0.21%), 동작(-0.20%), 서대문(-0.14%), 강북(-0.13%), 강동(-0.10%), 서초(-0.09%) 순으로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주택 수요층이 내 집 마련을 주저하는 상황이고, 다주택자는 세금 인상 우려감에 보유 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거래 절벽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으로 복원되기까지, 매매·전세시장이 봄 기운을 만끽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대구 아파트 분양 완판 행진

서대구 고속철도 등 호재 많아
1~2월 평균 청약경쟁률 46대 1
신규 단지 8곳 중 7곳 1순위 마감
3~6월 12개 단지 분양도 주목

사업명(건설사)	가구수(오피스텔)	전용면적(㎡)	분양시기
수성레이크 푸르지오(대우건설)	332(168)	84	3월
대구국가신단지 대방노블랜드(대방건설)	881	76~84	3월
e편한세상 복현(삼호)	620	59~84	3월
방촌역 세명리첼(세명종합건설)	403	82~84	3월
대봉 서한아름(서한)	469(21)	62~99	3월
수성명어W(아이에스동서)	1358(540)	82~102	4월
대봉 다담 센트럴파크(포스코건설)	1339	미정	4월
대구 도남지구(현대건설, 태영건설)	2418	미정	5월
감삼동 주상복합(현대엔지니어링)	568	미정	5월
황금동 힐스테이트(현대엔지니어링)	750	미정	6월
동대구역 주상복합(포스코건설)	442(48)	미정	6월
다사 주상복합(현대건설)	738	미정	6월

대구의 분양 열기가 뜨겁다. 비수기인 1·2월에 공급한 단지들도 완판 행진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해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1~3위 단지가 모두 등장했다. 전국 1위를 기록한 e편한세상 남산(346.5대1)을 비롯해 중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284.2대 1), 북구 복현 아아파크(280.5대 1) 등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올초 최고 청약경쟁률 역시 대구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도 나타났다. 1위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분양한 빌리브스카이(평균 135.0대 1)로 1순위 당해 지역 마감을 기록했다. 2위는 위례포레지아로 1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대구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차지했다. 대구 동구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셀은 126.7대 1로 마감했고, 이어 대구 중구 남산자이하늘채가 84.3대 1, 달서구 죽전역 동화아이위시가 60.5대 1 순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1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 8곳 중 7곳이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했다. 일반공급분 2767가구 모집에 청약통장만 12만8165개가 몰렸다. 대구지역 내 신규 단지의 1·2월 평균 청약경쟁률만 46.3대 1로 조사됐다.
아울러 빌리브스카이, 죽전역 동화아이

위시, 동대구 이안센트럴D 등 신규 단지들은 청약 이후에도 100% 계약을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지역에서 분양 성적이 좋은 신규 분양단지들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며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개발 등 도심의 개발 호재들도 많아 분양시장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상반기(3~6월)에 12개 단지, 1만31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둘째 주 전국에서 284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주에는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 경기 성남시 장곡동 '위례포레스트사랑로부영'(공공임대),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등 7개 사업장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곳에서 진행된다. 경북 포항시 죽도동 '포항동부아파트',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지웰시티푸르지오'를 시작으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승윤노블리안',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번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5곳으

로 경기 고양시 향동동 '고양향동A1(영구임대)',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지웰에스테이트', 서구 원당동 '검단센트럴푸르지오(AB16)' 등이다.
견본주택은 3개 단지에서 개관한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은평서해그랑블',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블로대광로제비양',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가 방문객을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11(월)	접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아델리체 (~3/12) ♣
			울산	동구	화정동
	계약	경기	고양시	향동동	고양향동A1(영구임대) (~3/13)
			부평구	갈산동	부평지웰에스테이트 (~3/13)
3/13(수)	접수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공공분양) 1순위(당해지역)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1순위
3/14(목)	접수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포레스트사랑로부영(A2-13)공공임대 1순위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공공분양) 1순위(기타지역)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2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한라, 1886억 공공·인프라 수주

한라가 연초부터 1886억 원 규모의 공공, 인프라 부문 수주에 성공하며,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라는 최근 김포~파주 고속도로 4공구(1035억 원·VAT포함), 현대오일뱅크 선석 부두 축조공사(851억3000만 원·VAT포함) 등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대형사와의 경쟁에서 앞서며 부산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고, 민자사업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의 주관회사로서 실시협약 최종 협의 과정에 있는 등 인프라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라는 그동안 평택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북항 방파제, 제주 탐동 방파제 등 항

만 분야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인천국제공항(계류장 A-5), 제주공항 활주로 공사, 공군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활주로 포장공사 등을 수행하며 공항도목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여 왔다. 또한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3·10공구),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등 다수의 철도,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시흥 고속도로) 민자 SOC사업에 주관사업자로 참여해 준공했으며 운영 중에 있다.
한라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19위)를 감안했을 때 타 건설사에 비해 인프라 분야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성현 기자 carlove@

‘5·18 모욕’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23년 만에 오늘 광주지법 공판 출석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한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이후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열렸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

는 만큼 전 씨는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 기일인 지난해 8월 27일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한 후 1월 7일 공판 기일에도 독감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첫 공판과 선고공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자 장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일종의 강제소환 영장으로,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전 씨는 공판 당일 오전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감은 채우지 않는다. 광주지법은 질서 유지를 위해 추



1996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선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점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고, 주변 경호 인력 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 씨는 1996년 1심에서 5·18 내란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8개월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 장호진 기자 js62@

‘BMW 화재’ 민사재판 또 연기되나

재판부 “수사 후 진행해야”

수개월간 재판이 지연된 BMW코리아의 차량 화재 관련 민사 재판이 또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화재 전조 증상이 보인 차량과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능자 리콜 의혹이나 회사가 차량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면 된다”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가 그 사안을 먼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재판은 강제력이 없어

형사 재판에서 강제로 조사하는 만큼 증거를 조사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기일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려고 했으나 원고 측 요청에 따라 5월 24일로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만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제가 안 되고 신속하게만 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해 재판 진행이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BMW 차주들은 차량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다수의 로펌과 손을 잡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에 기일이 예정된 소송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윤한솔 기자 charmy@

마사지하다 손님 성폭행 대법도 “강간죄 처벌 타당”

마사지 과정에서 일어난 간음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 씨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과장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뒤 기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진술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받았다. 2심은 1심 판단과 선고 형량 등이 옳다고 보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와~ 씨네 3월의 두번째 주말인 10일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옷들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탄광 퇴직 24년 뒤 난청 진단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소음성 난청 초기 인지 못해”

탄광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탄광 노동자였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업무 환경과 난청 특성상의 이유를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산에서 다년간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발생한 소음성 난청 이거나 노인성 난청이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

광산에서 12년간 근무했던 A 씨는 퇴직 후 24년이 지나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아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다년간 채탄 작업을 하느라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BRAVO My Life

Elegance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대로 제2 도약 꿈꾼다



⑦ 위메이드 WEMADE

2000년 2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설립 ▶ 2001년 3월 '미르의 전설' 상용화 ▶ 2004년 12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대상·특별상 수출공로상 수상

'게임 한류' 이끈 1세대 온라인게임 개발사

19년간 게임 개발 주력

위메이드는 2000년 2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약 19년간 게임 개발에 주력해 온 국내 1세대 온라인게임 개발사다. 미래의 더 큰 성장과 다양한 사업 확장을 위해 지난해 지스타 2018 현장에서 새로운 CI 공개와 함께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위메이드'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0년대 초 자체 개발한 MMORPG '미르의 전설2'를 기반으로 2011년에는 누적 매출 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국내 단일 게임 사상 전 세계 최대 매출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세계 누적 회원 2억 명(2008년), 중국 온라인 게임 동시 접속자 80만 명 신기록 달성(2005년) 기록을 남기며 온라인 게임 한류 돌풍을 이끌어 왔다.

위메이드는 2010년부터 모바일게임 시대를 예측하고 모바일전문 개발 자회사를 신설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모든 게임 플랫폼을 아우르며 규모와 내실의 성장을 이뤘다.

자체 개발 '미르의 전설2' 기반

2011년 누적매출 2.2兆 기록

2014년 '이카루스' 흥행 돌풍

'윈드러너' 등 모바일게임 호평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는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하며 장기적으로 성장과 성공의 근본이 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차별화에 집중해 왔다.

2012년에는 모바일 SNG '바이킹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모바일 퍼즐게임 '캔디팡' 등 국내 모바일 게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후 2013년에는 출시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윈드러너'를 선보였다. 윈드러너는 출시 12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흥행 돌풍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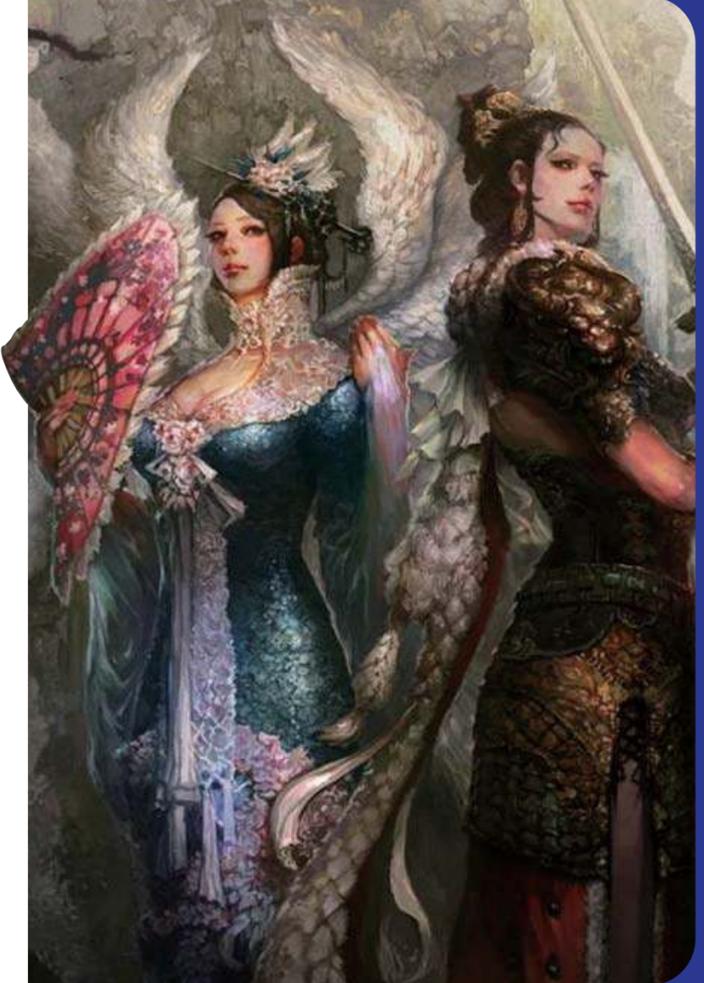
위메이드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역점을 두고 모바일 시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 왔다. 2013년 5월에는 게임업계 처음

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이카루스'의 시대였다. 5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이카루스는 PC방 점유율 5%대 진입, MMORPG 장르 1위 랭크, 2014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안정적 서비스와 흥행을 이끌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에 들어서는 포화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이끌었다. 고품질 모바일게임의 자체 개발을 통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준비하는 한 해를 보냈다. 이후 모바일 게임의 개발과 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체질개선을 통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RPG를 비롯한 각종 장르의 신작 게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해외 사업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IP를 기반으로 중국 파트너사와 다양한 IP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게임 '이카루스 M'은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동남아, 중국 등 서비



5월 게임업계 최초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 ◀ 2013년 1월 러닝 어드벤처 모바일게임 '윈드러너' 출시 ▶ 2012년 11월 '바이킹 아일랜드'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12월 코스타 상장



2014년 11월 '이카루스' 대한민국 게임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년 9월 '미르의 전설2 모바일' 중국 텐센트게임즈社 통해 출시 ▶ 2018년 11월 '위메이드'로 사명 변경

개발·퍼블리싱·해외 진출... '종합 게임사업' 목표로

새 먹거리 발굴 속도

위메이드는 지난해 창립 18주년을 맞아 사명과 새로운 CI를 선포하고 세 가지 사업 목표를 정립했다.

우선 지식재산권을 개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라이선스 사업으로 '전기아이피'를 설립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을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해외 진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게임사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담당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위메이드이카루

'위메이드이카루스' 등 개발사와 '위메이드서비스' 퍼블리셔 설립 공동사업 체제로 시너지 극대화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연구개발도

스', '위메이드넥스트', '위메이드열혈전기 에이치디', '위메이드플러스' 등의 개발사와 전문 퍼블리셔 '위메이드서비스'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개발 전문 자회사들의 독립적 운영과 책임을 강화하고 위메이드 그룹 내에서 게임 기획, 개발, 서비스, 운

영 등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긴밀한 공동 사업 체제를 구축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유명 개발자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개발사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과 개발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 '미르4' '미르M' 출시... "새로운 미르시대 연다"

IP기반 해외 진출 박차

위메이드는 과거 영광을 잇게 한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해 자체 개발 신작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도적인 스케일을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한 액션 MMORPG '미르4'는 올 상반기 국내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르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미르M'은 하반기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모바일 MMORPG 장르로 제작되고 있다. 여기에 '엔드림'의 김태곤 상무가 미르 IP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확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 '미르W(가칭)' 개발을 총괄하며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미르뿐만 아니라 이카루스 IP를 활용한 게임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이카루스M'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일본과 대만 지역 정식서비스를 시작했

'이카루스M' 글로벌서비스 확대

日·대만 이어 동남아 진출 계획

엑스엘게임즈 등 개발사 투자

중국 내 '미르' 등 IP사업 본격화

으며 앞으로 태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고 스팀과 콘솔 등 플랫폼을 확장할 예정이다.

게임 외에도 상생을 위한 가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엑스엘게임즈와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등 다양한 개발사에 약 600억 원가량의 투자를 진행하며 상생에 나서고 있다.

중국 IP사업도 본격화한다. 지난달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와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기반

으로 중국 IP 사업이 더욱 탄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위메이드와 산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다. 산다게임즈의 서브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다른 분쟁에 있어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또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라이선스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7월 중국 문화부 산하 '중국문화전매그룹'에서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IP 등록 시스템 'IPCI 플랫폼'에 참여했다. 앞으로 중국 내 미르 IP(지식재산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신작을 선보이며 새로운 미르의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신한만의 로보어드바이저로 세상 편한 자산관리의 시작 신한 SOL Rich

신한 SOL Rich의 로보어드바이저가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펀드 추천까지 알아서 자산관리 해주니까



복잡한 세상, 편한 자산관리
신한 SOL Rich | 쏘리치

복잡하고 어려웠던 자산관리는 끝! 신한 SOL Rich로 쉽고 편하게 자산관리 시작!

신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고객의 자산진단, 자산배분, 상품추천,
포트폴리오 설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Full 자산관리 서비스

쏘리치 펀드

개인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투자상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을 위한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쏘리치 퇴직연금

신한은행만의 자산배분 전략으로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설계를 제공하는
퇴직연금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



지금 '신한 SOL'
다운로드 받으세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8-2-2851호 (2018.12.13~2019.6.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4868호 (2018.12.13~2019.6.30)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쏘리치 멀티전략 I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 참여 예정이며, 신한-디셈버 ISAAC 알고리즘은 1차 테스트베드 통과하여 운영중입니다.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특별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hinhan.com, 1577-800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규제 샌드박스 통해 경자구역 돌파구 찾을 것”

김용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돼 외투기업 유인 효과 떨어져 규제 특례 연계 기업 유치...혁신 생태계·인프라 조성

“7개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 사업 추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김용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0일 “경자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외투) 유치를 위해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전국 7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자구역 입주 사업체 4729개사 중 외국인투자 기업은 331개사로 6.9%에 그쳐 산업단지나

특구 등과 차별성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 여기에 외투 유인책으로 노동·경영 관련 특례 및 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설립 허용 및 입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건축비, 초기 운영비 지원, 외투 기업 업종별 투자 규모에 따른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이 폐지돼 경자구역의 외투 기업 유치 환경이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단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경자구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관련 규제도 생기기 마련인데 경자구역과 규제 특례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혁신성장 사업 아



이템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올해 1월 구역별 혁신성장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를 구체화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 황해는 초소형 미래자동차 클

러스터 조성, 대구·경북은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 광양만권은 탄소자원 실증단지 구축, 충북은 오송 바이오밸리 구축, 동해안권은 육계지구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클러스터 조성, 부산·진해는 글로벌 물류단지 조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안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의미다.

김 단장은 생태계와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이 생기기 전에 혁신 생태계가 마련돼야 하고 이 생태계엔 연구 시설과 인력 등도 필수”라며 “일종의 혁신 인프라 집적 공간으로 경자구역을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패키지 형태 사업과 앵커 기업을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키로 보고 있다. 김 단장은 “경자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구상 중”이라며 “지자체, 지방자치청 등과 함께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의 명실상부한 선도가 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함영주(뒷줄 왼쪽 세번째) KEB하나은행장, 지성규(두번째) 행장 내정자, 김은기(네번째)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대표, 고효진(다섯번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명동 하나금융그룹 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 어린이집 “2020년까지 전국에 100곳 계획”

하나금융그룹은 8일 명동 사옥 2층에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지성규 행장 내정자를 비롯한 12개 관계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명동 하나금융그룹 직장어린이집은 친환경과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었다”며 “직원들에게 양질의 보육 환경 제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0개와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 및 운영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부영그룹, 한국디지털미디어고에 우정학사 신축·기증 기공식 가져

부영그룹은 7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학생들을 위한 우정학사(기숙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신명호(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회장 직무대행과 최양환(다섯번째)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측에선 조원표 학교법인 이사학원 이사, 김승익 법인사무국장, 박주현 교장을 포함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부영그룹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축·기증하는 우정학사는 연면적 약 1320㎡(400평) 3개층 규모로 1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33실(1실당 4인)과 샤워실, 탈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우정학사를 통해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지도와 사랑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애플 최대 부호 암바니 아들 결혼식 ‘다보스포럼’ 방불

전세계 정재계 거물 대거 참석...국내선 반기문 前총장·이재용 부회장

‘아시아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터스트리 회장의 장남이 9일(현지시간) 거물급 하객에 둘러싸여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암바니 회장의 만아들 아카시 암바니와 거대 보석 회사 ‘로지 블루 다이아몬드’ 가문 출신 솔로카 메타의 이번 결혼식은 다보스포럼을 연상케 했다고 인도 NDTV 등 현지 매체가 소개했다.

결혼식에는 암바니 가문과 화확, 가스, 석유, 이동통신 등 각종 분야에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참석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비

롯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앤드루 리베리스 다우케미컬 CEO,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 리드 헤스팅스 등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다. 릴라이언스인터스트리의 자회사인 이동통신사 릴라이언스지오인포컴은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다.

이번 결혼식은 지난해 12월 암바니 회장의 딸 이사 암바니의 결혼식이 열린 지 3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행사다. 암바니는 딸 결혼식에 최대 1억 달러(약 1137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반기문(왼쪽) 전 유엔 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무케시 암바니(오른쪽) 릴라이언스 인터스트리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뭌바이/AP연합뉴스

비용을 다소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NDTV는 “인도에서는 신부 측에서 결혼식 장소 선정과 피로연 행사 등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카를로스 곤 ‘변장’은 내 실책” 변호사 뒤늦은 고백

보석금 10억엔 내고 107일 만에 석방...공사 작업자 차림 ‘비야냥’

카를로스 곤 전 낫산자동차 회장의 ‘변장’ 석방이 연일 화제다. 곤 전 회장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변장’ 시나리오를 자신이 기획했으며, 실패해 사과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그리고 체포된 지 107일 만에 보석금 10억엔(약 100억 원)을 내고 6일 도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런데 그가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곤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군청색 작업복에 파란색 모자와 안경, 마스크 차림으로 구치소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공사 작업자 복장을 했던 것이다.(사진)

마스크에 요이치 도쿄 도지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장 차림으로 당당히 낫산



중 한 명인 다카노 다카시가 ‘변장’ 시나리오를 기획한 사람은 자신이라며 나섰다. 이어 “내 미숙한 계획으로 곤 전 회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명성에 먹칠을 했다. 계획에 협력해 준 친구들에게도 폐를 끼쳤다.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정 기자 0jung2@

부음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거목 문동환 목사 별세

민중신학자로 민주화운동의 거목인 문동환 목사가 9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8세.

문목사는 1921년 5월 5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부친 문재린 목사와 여성운동가였던 김신목 여사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독립운동과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명동촌에서 형 늦봄 문익환 목사, 운동주 시인 등과 함께 성장하며 어려서부터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에 뜻을 뒀다.

서울의 조선신학교(현 한신대)를 나온 고인은 웨스턴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를



거쳐 하트퍼드신학대학에서 종교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에 돌아와 모교인 한신대 교수가 된 이래 군부독재에 맞서 해직·복직을 반복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88년 정치에 발을 들이고 평화민주당 부총재를 지냈다. 국회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문혜림(헤리엇 페이 핀치백), 아들 창근·태근, 딸 영혜·영미(이한열기념관 학예실장) 씨가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02-2227-7500

▲이부자 씨 별세, 김현준(코리아터보텍 부장)·애란·경미 씨 모친상, 윤성만(코리아터보텍 대표)·권동형(한국일보 상무) 씨 장모상 = 10일, 인천 송림동 청기와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20분, 032-571-1326

▲이용곤 씨 별세, 이창수(썬삼양 감사)·경희·남미·혜경·창권(KB금융지주 전략총괄 전무) 씨 부친상, 노대명(보건연구원 팀장) 씨 장인상 = 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국립 4·19 민주묘지, 02-2227-7563

▲김필건(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씨 별세 = 10일, 강릉 아산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2일, 033-610-5983

▲박남주 씨 별세, 박형우(보성군청 기

획예산담당관)·성빈(한양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재성 씨(하스퍼 대표) 부친상 = 8일, 전남 보성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9시 30분, 061-853-4404

▲백남순 씨 별세, 백명기(자영업)·문기(스포츠조선 정보회사사업장)·선옥 씨 부친상, 이종수·김현정(고양문화재단 음향감독) 씨 시부상 = 9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1일 오전 8시 30분, 070-7816-0245

▲공금선 씨 별세, 임용윤(이화산업 회장)·경윤(비즈엔텍 회장) 씨 모친상, 길병건(송암물산 대표이사)·김정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씨 장모상 = 9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02-3010-2230

계시판

서울중기청,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다음 달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행사 안내 및 참가신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벤처캐피탈협,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서울 서초구 VR빌딩에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19년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을 연다고 밝혔다. 교육신청은 20일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손진욱 △총무기획관실 인사과장 박상철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기획과장 허판생 △소통총괄비서관실 언론홍보행정관 백승일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이화원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양찬희 △소통지원비서관실 언론분석행정관 김영선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조판기 △국가방재연구센터장 한우석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이상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김중학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이재용 △국토시물레이터센터장 이영주 △홍보출판팀장 이강식 △지식관리팀장 김상규 △연구기획·평가팀장 박경현 △예산경영팀장 전준호 △인재개발팀장 박동신 △어린이집전립추진담당장 김경동 △총무관리팀장 김형표 △재무회계팀장 김성태 △청사관리팀장 이판식

임병학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주목하라

이미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대부분의 금융 영역(지급결제, 대출, 예금, 자산관리, 보험 등)에 진출해 있고 구글과 아마존은 지급결제, 대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해 있는 페이스북, 애플, MS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영역 확대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지난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핀테크 및 금융 서비스 시장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 핀테크 시장 동향과 핀테크 시장이 금융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핀테크 시장이 성숙해 가고 있고 전통적 금융기관들도 핀테크의 기술혁신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현재까지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과 고객이 충분하지 못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기관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금융규제로부터 벗어나 금융기관의 고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다. 반면,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및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이익을 얻고 있다. 아직까지는 서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대출 및 지불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늘면서 금융기

관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이 데이터 제공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자동분석 등 핵심 운영에 대한 제3자 의존도와 함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운영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라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공격이나 지불 불능 등으로 금융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 국내에서도 수차례 경험한 전례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한 세 번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금융 시장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미 대규모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은 물론,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자본을 바탕으로 빅테크 기업은 빠른 속도로 금융 시장에 침투해 기존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의 거대 IT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대부분의 금융 영역(지급결제, 대출, 예금, 자산관리, 보험 등)에 진출해 있고 구글과 아마존은 지급결제,

대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해 있는 페이스북, 애플, MS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영역 확대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낮은 수수료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형태의 경쟁으로 인한 위험은 금융 시장 안전성에 부정적 요소가 되겠지만, FSB는 이미 대세가 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인정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2017년 말 기준 모두 288개의 핀테크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지급결제부터 P2P금융, 플랫폼,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2017년 투자 규모는 총 1000억 원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국내 핀테크 시장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현저히 낮아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 본격화될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시장 진출은 국내 핀테크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이미 금융업에 진출해 있는 중국 IT기업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국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이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추진과제에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 가속화를 포함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비롯해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전문·특화 금융회사로의 진입요건을 완화한다고 한다. 또한, 유예되었던 규제 샌드박스 실시는 물론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신용분석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등을 포함하였고, 그동안 지적받았던 금융상품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국내 IT기업들의 역차별은 물론, 국내 소비자만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벤저민 호프 '곰돌이 푸, 인생의 맛'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를 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꾸준한 인기를 끄는 책을 소개한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간결한 지혜'라는 부제목을 단 이 책은 벤저민 호프의 '곰돌이 푸, 인생의 맛'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우화와 곰돌이 푸라는 만화와 도가 철학을 적절히 섞어 만든 책이다. 속도가 빠르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철학을 등불 삼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 책이 지혜의 으뜸으로 꼽은 철학은 도가 사상이다. 저자는 1982년 이 책이 초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한때 요가나 태극권 수련에 몰입하기도 했지만 2006년부터는 절필을 선언한 사람이다.

도가철학에서 말하는 박(樸)은 영어로 푸(pu)인데, 그 뜻은 '다듬지 않은 통나무'이다. 이것은 '사물이 본래의 단순한 상태에 머무를 때 그 사물이 본래 지닌 자연스러운 힘이 발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

다. 삶에서 복잡함이나 오만함과 같은 눈을 가리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오롯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단순하고 고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툭툭대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갈등과 분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 날로 자국이 강해지는 시대에 온전히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처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인식할 때 비로소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도가 철학은 무위(無爲)를 강조한다. 무위의 본질에 대해 저자는 "마치 시냇물이 졸졸 흐르다가 커다란 바위를 만나 빙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이를 풀어 쓰면 기계적이고 직선적인 접근법보다는 사물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필요하다면 둘러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무위가 주는 또 하나의 처방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종일관 목표에 집착해서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 '알아차림'을 놓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의 순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알아차림도 연장된다. 알아차림이 차근차근 더해지면 우리들은 재미를 만끽하며 살 수 있다. 저자가 제안하는 삶의 자세는 남송시대의 문인 육우(陸羽)가 남긴 한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머리 위의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고 하고, 마당에 부는 바람은 떠났다 돌아왔다 하네. 인생도 그런 것인데, 편안히 쉬지 않을 이유가 없네. 우리의 축제를 그 누가 막을꼬나?"

눈이 내리는 날을 떠올려 보자. 눈이 내리면 내릴수록 점점 더 온다는 노랫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말하는 '눈덩이 효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일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증폭될 수 있음을 말한다. 지혜나 행복 그리고 용기도 모두 눈과 같은 것이다. 잘 살아내는 것에 대해 저자의 처방은 세상의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 저자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를 안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 지혜롭고 단순한 목소리, 똑똑함을 넘어 이성을 발휘하고 지식 이상의 것을 아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한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조언들이지만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도가 강좌는 그 나름의 편안함이 함께하는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알렉산더 플레밍 명언

"나는 페니실린을 발명하지 않았다. 자연이 만들었고, 나는 단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허나, 내가 단 하나 남보다 나았던 점은 그런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균 학자로서 대상을 추적한 데 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 세균을 죽이는 리소자임을 발견·분리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포도상구균 배양기에 발생한 푸른곰팡이 주위가 무균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해 배양물을 800배로 묽게 해도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이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했다. 그는 오늘 서거했다. 1881-1955.

☆ 고사성어 / 형설지공(螢雪之功)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 고생 속에서 공부함을 일컫는 말이다. 후진(後進)의 이한(李翰)이 지은 '몽구(蒙求)'에 나오는 손강(孫康)의 일화에서 유래했다. 그는 가난해 기름을 못 사 늘 눈빛에 책을 비추며 글을 읽어 여사대부(御史大夫)에 올랐고, 진(晉)의 차운(車胤)은 여름에 수십 마리 반딧불을 주머니에 담아 그 빛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읽어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고 한다.

☆ 시사상식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한 개 회사 또는 개인이 단독으로는 시공 불가능한 대공사 등을 인수할 목적으로 발족하는 공동사업체. 공동도급을 말한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작업이 수행되며, 합병회사라고도 한다.

☆ 우리말 유래 / 씨 보고 촌춘다.

너무 일찍 서두르다. 오동나무 씨만 보고도 그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면 베어서 가야금을 만들 것을 생각하고 미리 촌을 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 유머 / 태풍이 많은 이유

기상대 직원의 색다른 해석. "남자 태풍하고 여자 태풍을 마구잡이로 섞어놓으니까 꼬마 태풍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잖아!"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전 정권보다 관치(官治)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다음 달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앞두고 한 대형 보험사 임원이 한 말이다.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저지 압박도 모자라 시중은행장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불만이 한가득이다. '슈퍼 갑(甲)'이 부리는 칼 앞에 여쩍 도리가 있느냐는 불만 소리도 빼먹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를 19위(140개 국가 중, 2018년 기준)까지 올려놓은 그들의 성과를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금융회사=범죄자'로 오해하게 만든 것에 공감했다.

하지만 당국의 행보를 깡그리 알잡아 '관치'로 통칭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되물었다.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고 나면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은행권 채용 비리부터 대출 금리 조작, 보험금 지급 거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년 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때도, 회

장과 행장이 동반 퇴진한 KB 사태 때도 그들의 답은 한결같았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빈틈없이 하겠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지금껏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객이 떠안고 있다.

이유가 뭘까. 처벌이 약해서다. 2005년 12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리보(LIBOR

) 금리를 조작하다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글로벌 IB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제재할 근거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들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독일 목사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이다. 소비자 머릿속에 금융회사들이 '믿을 만한 곳'이란 인식이 자리 잡으려면 책임감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그전까지 금융당국의 간섭은 '다스리려는 힘(治)'이 배제된 '관리'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박 선 현 금융부/sunhyun@

관치와 관리의 차이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레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팩스 (02)799-1003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누굴 위한 '자사주 갖기' 운동인가

올해 금융권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지만, 눈에 띄는 이슈가 없다. 이미 주요 쟁점 사안들이 정리된 탓일까. 아니면 주총에서 다뤄질 만한 이슈들이 사전에 묻힌 탓일까. 올해는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나마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노조가 잇따라 도입을 공식화하며 노동이사제가 이번 주총에서 다뤄질 만한 이슈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백승현 변호사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자, 이마저도 유야무야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다. 또 금융당국의 난색으로 인해 구체적인 도입 절차를 밟아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노조가 "후진적인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노동자 경영참여"라고 외쳤던 성명에 힘이 빠진다.

결국, '뜨거운 감자' 없는 금융권의 주총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노조를 중심으로 자사주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10% 보유를 목표로 꾸준히 자사주 매입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 자사주 6% 이상 확보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18.43%)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우리사주조합의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확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은행과 손해보험, 증권 등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12개 계열사 2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안팎을 모아 40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비슷한 움직이다. 신한금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성과급에서 절반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했다. 합병 이후 수년간 제도통합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쓴 하나금융은 노조 중심으로 자사주 확보는 시간문제다.

그렇다면 자사주 확보에 취중하는 의중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은 대개 회사의 노조가 운영한다.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향후 경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포석으로 활용된다.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회사 경영에 대해 노조가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과거 자사주 매입은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새로운 '노사 관계'를 도출한다는 경영적인 판단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은행 노조가 2017년 말 우리사주조합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향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 제안'으로 변경한 것이 그 방증이다.

조합의 지분이 늘어날수록 향후 주총에서 '노동자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또 투명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 금융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는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우리 노동자들은 경영진이 그래왔듯이 공익을 사외 추구에 종속시키는 파렴치한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금융노조의 성명이 이를 대변한다.

금융회사는 국민 생활 경제 안정에 관심이 없고 그저 돈 장사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조직이 아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포용적 금융보다 전담포식 가계금융을 통한 안전자산 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조직이 아니다. 조합원의 재산 형성 촉진에만 목적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이 2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7년 전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금융당국의 고배당 제한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순익 때문에 배당 확대를 막을 명분이 없었다.

바야흐로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꽃을 피우게 됐다. 그러나 어쩌면 같은 조직, 같은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조합원들이 주주 환원정책의 주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금융산업의 공익의 실종은 더욱 가속화하지 않겠는가.

acw@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근로소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놓았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한 '제로페이' 활성화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됐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8차례의 일몰(日沒) 연장이 있었고, 올해 말 다시 기한이 돌아오면서 정부가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세법 개정에서 20%였던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15%로 낮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사실이다. 세원(稅源)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소득공제 축소를 거론한 이유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통해 상당액을 환급받는 '13월의 보너스'로 도움을 얻어왔다. 20년 동안 시행되면서 직장인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로 정착된 혜택의 축소가 저항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최고 50만 원 가량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각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제로페이는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제로페이의 올해 1월 한 달 동안 결제실적은 8633건이고 결제 금액은 2억 원에도 못 미쳤다. 4만 6628개 가맹점 한 곳당 결제 건수는 겨우 0.19건에, 금액도 4278원에 그친 초라한 실적이다. 같은 달 국내 신용 및 직불 등 개인카드 결제 건수는 15억6000만 건, 금액은 58조1000억 원이었다. 제로페이 보급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다른 결제수단보다 이용하기 불편한 탓이 크다. 신용카드 혜택을 줄인다고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카드 공제 축소는 사실상 증세다. 가뜩이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제 혜택을 폐지할 때 추가 세수 규모는 2조 원 정도로 별로 크지 않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마당에 내수 진작에도 역행한다.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

문선영의 썬데이



자본시장1부 차장

주총 시즌, 변화의 바람이 분다

KCGI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타깃으로 한진그룹을 선택했다. 총수 일가 갑질 사태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한진그룹에 대한 KCGI의 공격에 호의적인 여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투자 수익 추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을 추구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연한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총수 일가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현실

을 감안하면, 주주가 적극적인 감시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새로운 변화다.

당장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주주들의 제안 등을 일부 반영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열사 겸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인 한진칼, 그룹의 모태인 ㈜한진,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등 3개사 이외의 계열사 겸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갈 길은 멀다. KCGI가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는 한진그룹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27일 예정된 한진칼, 한진 및 대한항공 주총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으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moon@



다육(多肉)이

봄빛이 완연하다. 새봄을 맞아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청소 하면 우선 앞뒤 베란다를 떠올린다. 뒤 베란다에는 살림살이와 관련된 여러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고, 앞 베란다에는 관리 소홀로 죽은 화분에 담긴 화초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방치된 화분 중에는 이른바 '다육이' 화분도 있다. 새봄을 맞아 앞뒤 베란다를 깨끗이 청소하며 겨울 추위를 이기고 버텨온 화분의 화초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화분의 화초는 소중한 생명이다.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육이는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은 토양과 건조한 날씨에서 살아남기 위해 뿌리보다는 오히려 땅 위로 드러난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한다.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잎이나 줄기가 두꺼워야 한다. 즉 줄기나 잎의 육질(肉質)이 많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많은 다(多)'와 '고기 육(肉)'을 쓰고의존명사 '이'를 덧붙여 '다육(多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선인장이 대표적인 다육식물, 즉 '多肉이'이다.

다육이는 그 종류가 참 많다.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채롭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 양증맞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감동을 받기 위해 다육이를 키우는 게 아닐까? 단지 다육이가 보여주는 각각각색의 줄기와 아름다운 꽃만을 탐하여 다육이를 키운다면 그런 사람은 다육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탐하기 전에 자연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연은 내 맘대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알고 또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행여 내 발길 아래 생명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99.999%
이것이 일반 청정과
초순도 청정의 차이

삼성 무풍큐브,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필터로
무결점에 가까운 청정을 실현하다

초순도 공기청정기

삼성 무풍큐브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μm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시험입자: 0.3μmKCl 입자, 풍속: 1.0 m/s).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미국냉공조학회(ASHRAE) 정의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함(무풍청정은 무풍모드에서 작동됩니다)